

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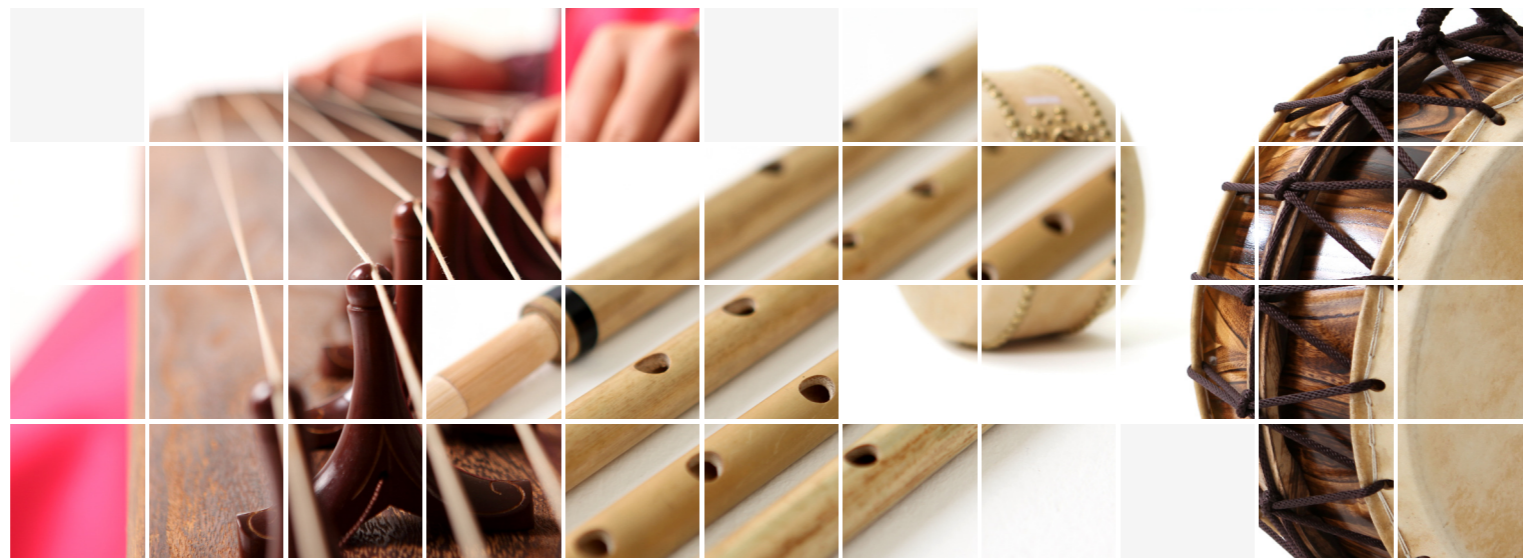
해금 소리 '가구 기기고', 삶을 노래한다

HAEGEUM

'Ga-Gu Gi-Gi-GO'
the sound of a haegeum, singing Life.



한국의 전통악기



한국의 전통악기는 (1) 음악에 따른 분류 (2)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 (3)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 분류로 구분한다. (1) **음악에 따른 분류 방법**은 중국에서 1114년(고려 예종 9년)에 수입된 대성아악에 쓰이는 아악기, 중국과 서역에서 제작되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 악기를 가리키는 당악기,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고유의 향악기로 나누어 분류하는 방법이다. (2)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 방법**은 자연에서 얻은 여덟 가지 재료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3)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로 분류하는 방법**은 악기를 연주할 때 나타나는 특징에 따른 것이다.

음악에 따른 분류 방법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 방법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 분류

한국의 전통악기



1493년(조선 성종 24년)에 편찬한 『악학궤범(樂學軌範)』 권6의 <아부 악기 도설>과 <당부 악기 도설>, 권7의 <향부 악기 도설>에 소개된 국악기 분류 방법이다. 크게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로 나뉘고, 현재 연주되지 않는 악기도 포함돼 있다.

향악기(鄕樂器) 향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는 악기

가야금(伽倻琴), 거문고(玄琴), 향비파(鄕琵琶), 향피리(鄕簫), 대금(大笏), 중금(中笏), 소금(小笏), 소관자(小管子), 초적(草笛)

아악기(雅樂器) 아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는 악기

편종(編鐘), 편경(編磬), 특종(特鐘), 특경(特磬), 건고(建鼓), 삭고(朔鼓), 응고(應鼓), 뇌고(雷鼓), 영고(靈鼓), 노고(路鼓), 뇌도(雷鼗), 영도(靈鼗), 노도(路鼗), 도(鼗), 절고(節鼓), 진고(晉鼓), 축(祝), 어(敵), 관(管), 약(籥), 화(和), 생(笙), 우(竽), 소(簫), 부(缶), 적(箎), 훈(埴), 지(篋), 슬(瑟), 금(琴), 순(鎗), 탁(鐸), 요(鐔), 탁(鐃), 응(應), 아(雅), 상(相), 독(牘)

당악기(唐樂器) 당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는 악기

박(拍), 방향(方響), 월금(月琴), 교방고(敎坊鼓), 장구(杖鼓), 당비파(唐琵琶), 해금(奚琴), 대쟁(大箏), 아쟁(牙箏), 당피리(唐簫), 당적(唐笛), 통소(洞簫), 태평소(太平簫)

한국의 전통악기



중국 고대 음악 관련 문헌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류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말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악고(樂考)」에 소개된 국악기 분류 방법이다. 악기의 재료에 따라 크게 팔음(八音)으로 분류한 뒤, 아악에 해당하는 <아부(雅部)>와 속악에 해당하는 <속부(俗部)>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연주되지 않는 악기도 있다.

금부(金部)악기 쇠가 주재료인 악기

아부: 특종, 편종, 순, 요, 탁(鐸), 탁(鐃)

속부: 향발, 방향, 동발(銅鈸)

석부(石部)악기 돌이 주재료인 악기

아부: 경(磬)

사부(絲部)악기 줄이 주재료인 악기

아부: 금, 슬

속부: 거문고, 가야금, 해금, 당비파, 향비파, 월금, 대쟁, 아쟁, 알쟁(篋箏)

죽부(竹部)악기 대나무가 주재료인 악기

한국의 전통악기



아부: 소(簫), 약(簫), 관(管), 적(簞), 지(篋)

속부: 대금, 중금, 소금, 통소, 당적, 당피리, 태평소

포부(匏部)악기 바가지가 주재료인 악기

아부: 생(笙), 우(竽), 화(和)

토부(土部)악기 흙이 주재료인 악기

아부: 훈, 상, 부, 토고(土鼓)

혁부(革部)악기 가죽이 주재료인 악기

아부: 건고, 삭고, 응고, 뇌고, 영고, 진고, 노고, 뇌도, 영도, 노도

속부: 대고, 소고, 절고, 교방고, 장구

목부(木部)악기 나무가 주재료인 악기

아부: 부, 축, 어, 응, 아, 독

한국의 전통악기



1914년 호른보스텔(E.M. von Hornbostel, 1877~1935)과 쿠르트 작스(Curt Sachs)의 저서『악기분류법시도』에도 소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 분류로 크게 나눈 다음, 관악기를 북 종류와 그 밖의 악기로 나누는 방법이다.

현악기(絃樂器) 줄을 뜯거나 튕기고, 도구를 이용해서 소리 내는 악기

가야금, 거문고, 해금, 양금, 아쟁 등

관악기(管樂器) 호흡을 이용해 입으로 불어서 소리 내는 악기

대금, 피리, 단소, 태평소, 통소, 훈 등

타악기(打樂器) 채와 손을 이용해 두드리고 쳐서 소리 내는 악기

편종, 편경, 장구, 북, 좌고, 팽과리 등



○

一

알
아
보
기

○

二

살
펴
보
기

○

三

체
험
하
기



—

알아보기

해금의 유래와 역할

글과 그림 속의 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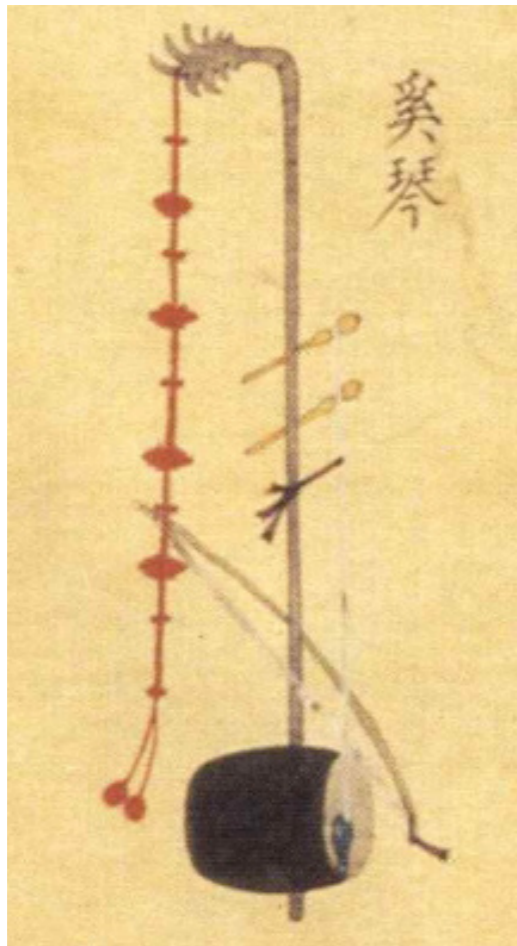
해금 재료

해금 제작 과정



해금의 유래와 역할

해금은 대륙을 건너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악기가 되었다.



가장 오래된 시기의 예술은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수렵과 채집에 의존 ↕ 했던 원시사회의 사냥꾼 예술가는 동물을 그리는 행위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그린 동물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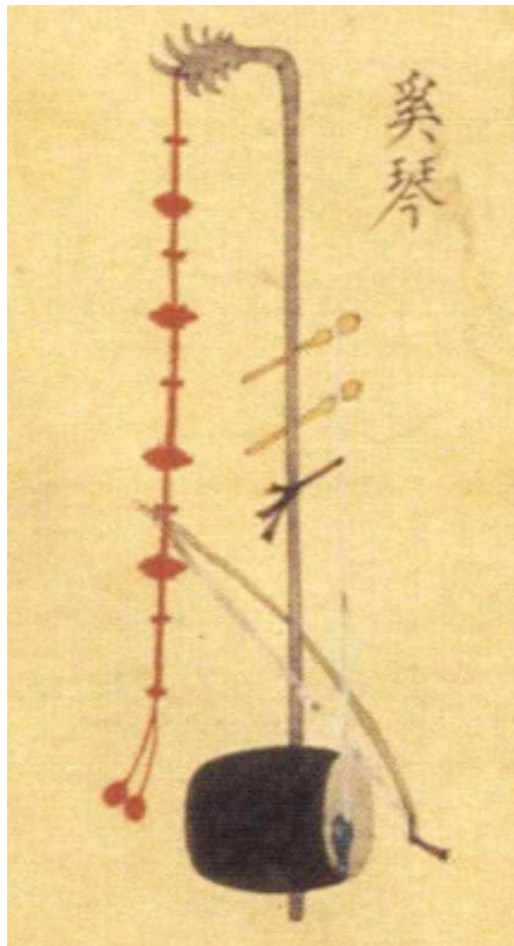
인류 최초의 현악기는 사냥을 할 때 사용했던 활의 줄을 튕기거나 문질러 소리를 내던 것이 시작이었다. 현을 마찰시켜 소리를 내는찰현악기(擦絃樂器)는 현의 재료에 따라 다양한 음색이 결정되며, 줄의 길이와 장력으로 음정을 조율한다.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나(Ramayana)』에는 기원전 3000년 전에 만들어진 라바나스트론(ravanastron)이라는 현악기가 등장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찰현악기인 해금에 관한 가장 오래된 정보는 중국 송(宋)나라 시대의 진양(陳暘)이 편찬한 『악서(樂書)(1104)』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 책은 해금이 “해족(奚族)이라는 유목민족이 즐겨 연주하던 악기”에서 유래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외에도 『문헌통고(文獻通考)(1318)』와 『악학궤범(樂學軌範)(1493)』에서 해금을 둘러싼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해금의 유래와 역할

해금은 대륙을 건너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악기가 되었다.



고려 예종9년(1114), 송나라에서 들어온 대성아악(大晟雅樂)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진 해금은 이후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악기로 자리 잡는다. 국가 차원의 주요행사부터 일상의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제 역할을 맡아오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사용되어 ‘깡깡이’, ‘깡깡이’, ‘앵금’ 등의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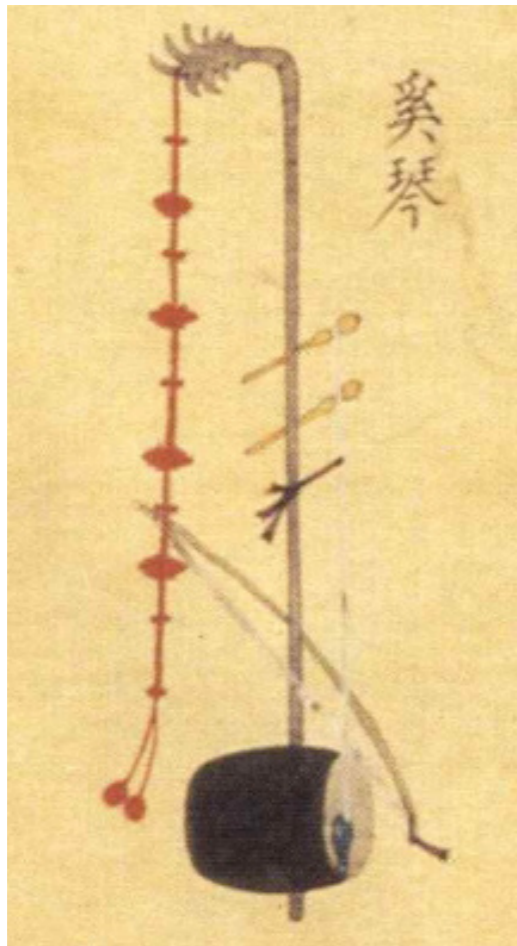
해금은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구성하는 8가지 재료(금속, 돌, 실, 대나무, 박, 흙, 가죽, 나무)가 모두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전통음악에서 해금은 현을 사용해 소리를 내면서도 가야금, 거문고 등과 다르게 지속음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악기’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두고 관악기면서 현악기라는 뜻의 ‘시사시죽(是絲是竹)’ 또는 반대로 관악기도 아니고 현악기도 아니라는 뜻의 ‘비사비죽(非絲非竹)’이라고 불렸다.

해금은 왼손으로 음정을 짚고 오른손으로 활을 쳐서 연주하는데, 보통의 현악기에 있는 지판(指板, 손가락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판)이 없어서 정확한 음정을 잡기가 다소 어렵지만, 그만큼 현을 누를 수 있는 폭이 넓어 어떤 악기보다도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해금의 유래와 역할

해금은 대륙을 건너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악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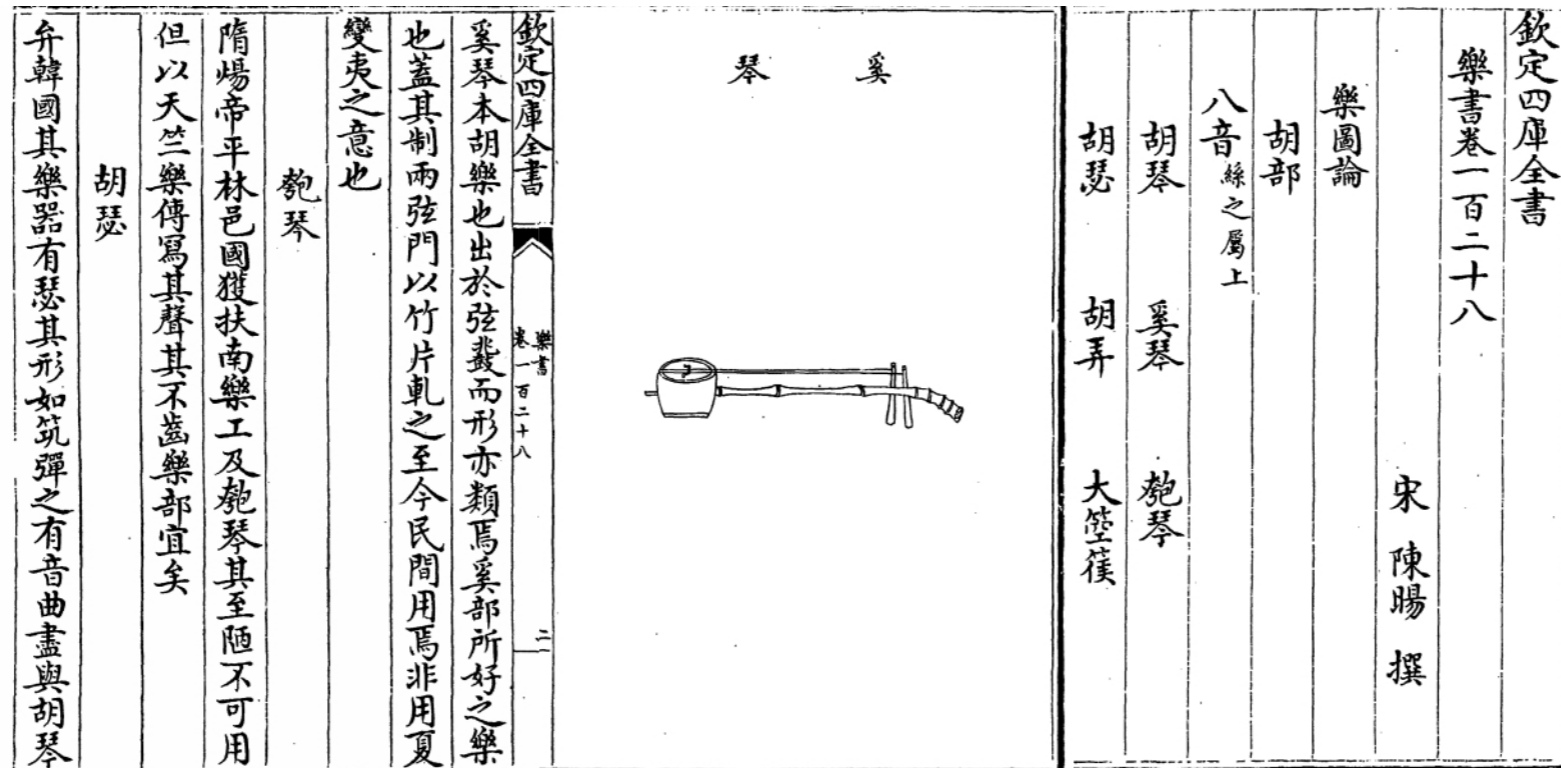


팽팽하게 고정하지 않은 느슨한 활을 들고 때때마다 탄력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연주를 잘하기가 어려워 '9년 통소 10년 해금'이란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과 활의 조화'야말로 해금만의 독특한 음색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명주실을 꼬아 내린 단 두 줄의 신비로운 울림만으로 듣는 이들의 심금(心琴)을 울리는 해금은 현대사회에서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전통악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의 해금은 궁중음악과 풍류음악 민속음악 등 전통음악부터 창작음악과 대중음악 그리고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연주하는 '전천후(全天候)' 악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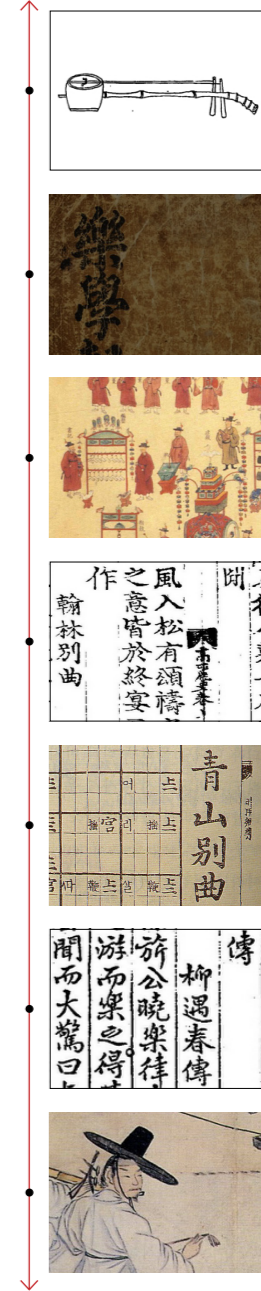
글과 그림 속의 해금



진양(陳暘)의 『악서(樂書)』 권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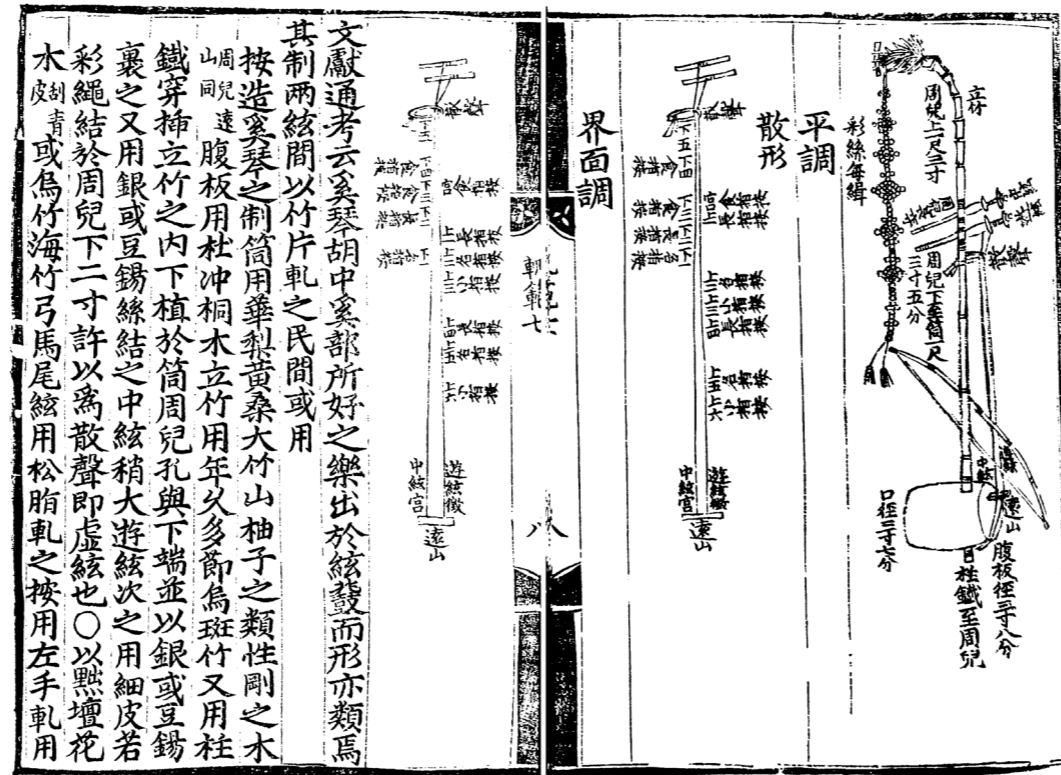
중국 송대(宋代) 1104년 | 浙江大学图书馆(절강대학도서관) 소장

중국 송대 진양이 편찬한 『악서』에는 해금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남아 있다. 『악서』는 중국음악사와 이론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왕조 초기의 음악사 및 음악이론 연구에도 중요한 문헌 중 하나다. 이 기록에 따르면 해금은 두 줄 사이를 죽편(竹片)으로 문질러 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본래 변방 이민족들 중 해부족(奚部族)이 즐기던 현도(絃叟)라는 악기와 형태가 비슷하며, 당시 민간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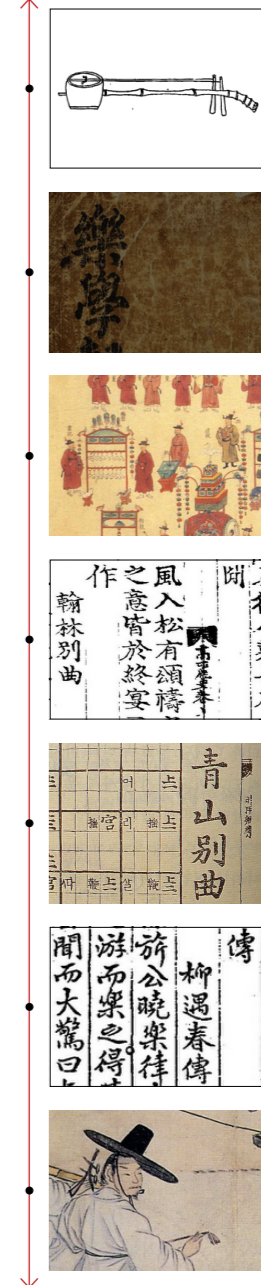
글과 그림 속의 해금



『악학궤범(樂學軌範)』 권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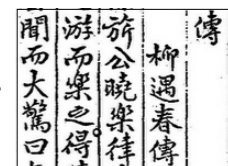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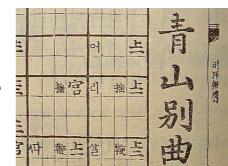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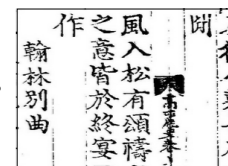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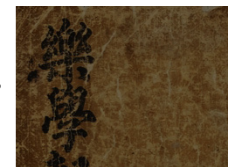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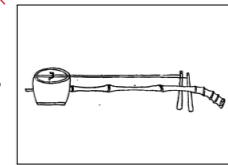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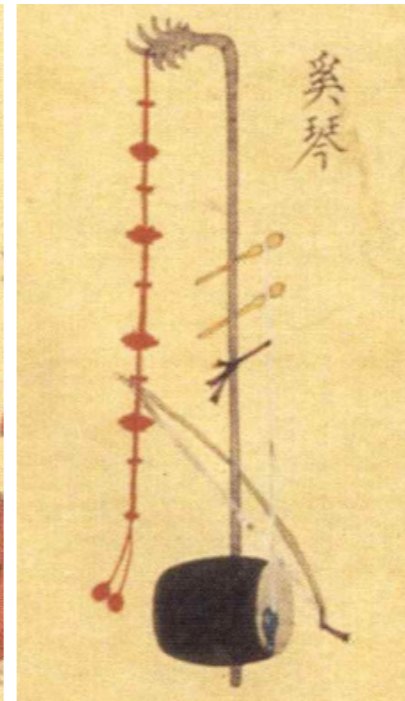
조선 성종 24년(1493) | 국립국악원 소장

조선 전기 성종 때의 음악을 기술한 악서다. 총 9권 3책으로 구성된 이 책은 예조판서 성현(成俔) 등이 왕명에 따라 장악원의 의궤와 악보를 정리해 편찬했다. 이 책에는 성종 시기 음악 전반에 대한 내용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권 7의 「당부악기도설(唐部樂器圖說)」에는 해금의 제작 과정 및 평조와 계면조의 선법에 따른 해금 주법이 등장한다.





글과 그림 속의 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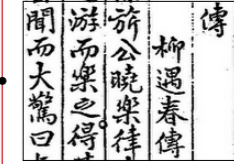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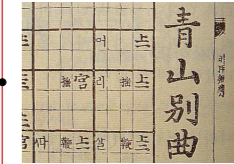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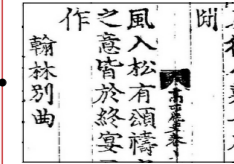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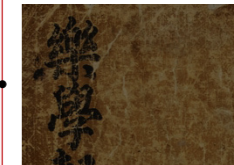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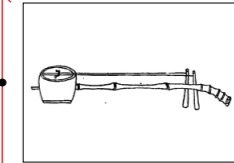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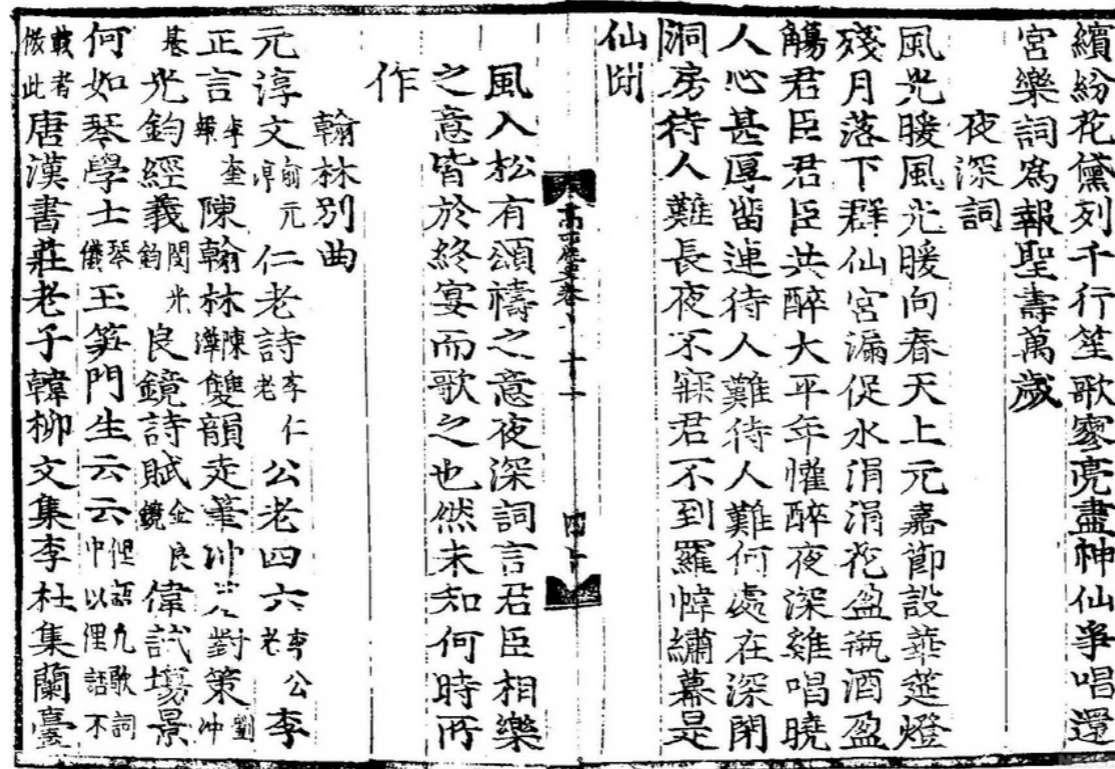
기사진표리진찬의궤(己巳進表裏進饌儀軌)

조선 순조 9년(1809) | 영국국립도서관 소장

순조 기사년(己巳年, 1809) 혜경궁 홍씨의 관례(冠禮) 60주년 기념 궁중잔치를 기록한 의궤(儀軌)다. '진표리진찬(進表裏進饌)'은 중요한 절기 또는 국가적인 경사가 있는 날에 옷감을 바치던 행사를 일컫는다. 기사진표리진찬의 궤에도 해금의 그림이 남아 있는데, 현대의 해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진찬의궤인 기사진표리진찬의궤는 병인양요(1866) 때 프랑스 군이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에 포함되어 현재 영국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글과 그림 속의 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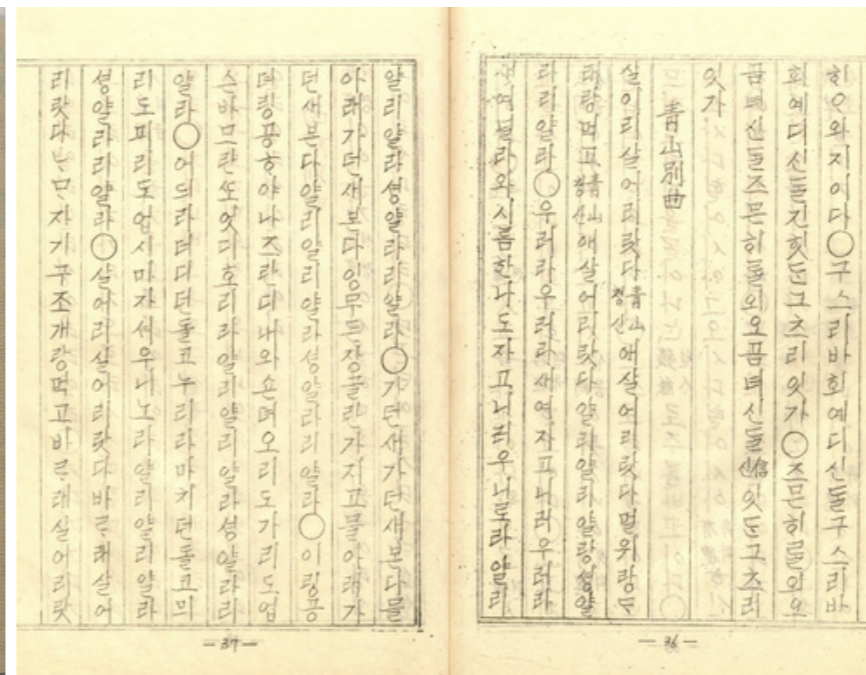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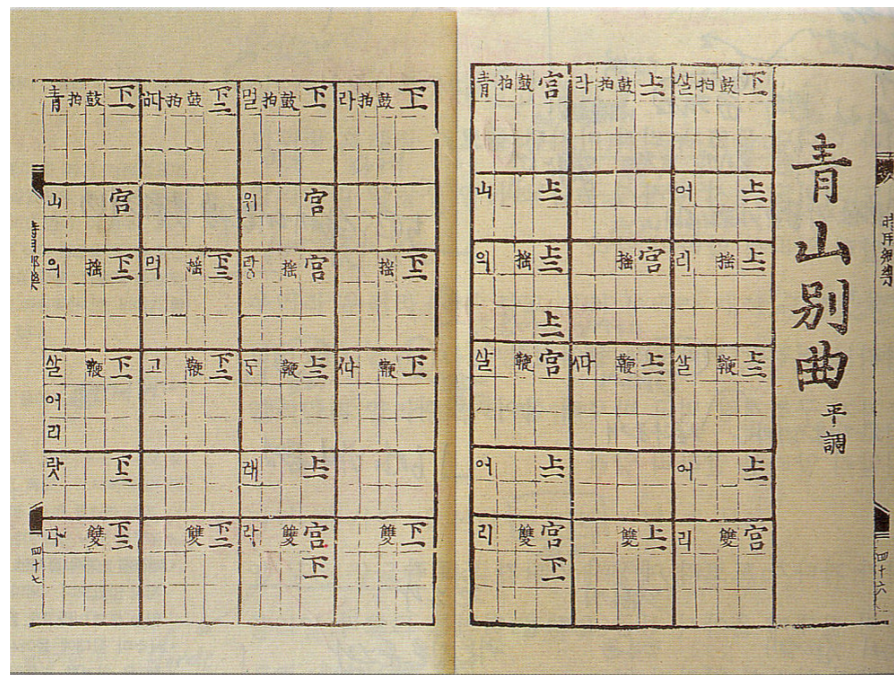
한림별곡(翰林別曲)

고려 고종 2,3년경(1215~1216) | 규장각 소장

〈한림별곡〉은 고려 고종 때 한림의 여러 선비들이 지은 노래다. 『고려사악지(高麗史樂志)(1451)』, 『악장가사(樂章歌詞)』 등 조선 초기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총 여덟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6장에는 여러 악기와 더불어 ‘해금(絃琴)’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해금이 ‘해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과 당시에 해금이 널리 연주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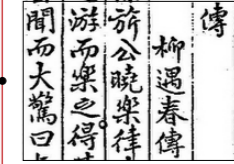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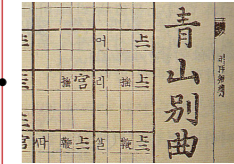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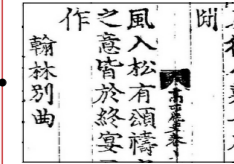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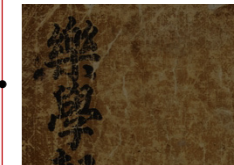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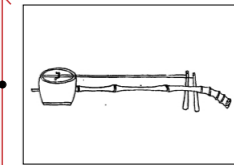
글과 그림 속의 해금



청산별곡(靑山別曲)

고려시대 | 작자 미상 | 장서각 소장

고려시대 민간에서 불린 <청산별곡>은 <가시리>, <서경별곡>, <만전춘별사> 등과 더불어 가장 뛰어난 고려가요의 하나로 꼽힌다. 『악장가사(樂章歌詞)』,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에 수록되어 있으며 총 8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7연의 '사슴이(혹은 사슴 분장을 한 사람이) 장대에 올라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노라'라는 가사를 통해 당시 해금이 궁중에서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친숙한 악기로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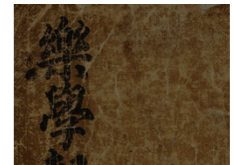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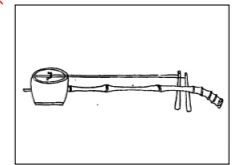
글과 그림 속의 해금

冷齋集卷之十
傳
柳遇春傳
徐旂公曉樂律喜客客至命酒鼓琴吹笛以侑之。余從之游而樂之得其奚琴焉以歸。合聲引手作蟲鳥吟旂公聞而大驚曰與之粟一溢此禍之夫之琴也。余曰何居旂公曰甚矣子之不知樂也。國之二樂曰雅樂曰俗樂。雅樂者古樂也。俗樂者後代之樂也。社稷文廟用雅樂。宗廟泰用俗樂。是為樂園法部。其在軍門曰柷樂。鼓厲凱旋擊緩要妙之音。無所不備。故游宴用之。於是而有鐵之琴。安之。南東之腰鼓。卜之。藏策。而柳遇春。尾宮其俱以奚琴名。子如好之。何不從而師之。安得此禍之夫之琴乎。今夫禍之夫。操琴倚人之門。作翁媪嬰兒畜獸雞鴨百蟲之音。與之粟而後去。子之琴。無乃是乎。余聞旂公之言。大慙。囊其琴而歸之。不解者數月。宗人琴臺居士來訪。居士為故縣監柳雲卿子。雲卿少往俠善騎射。英宗戊申。討湖賊。著軍功。悅李將軍家婢。生二子。余從容問居士二弟者。今安在。曰。竟皆在爾。吾故人。有為邊郡太守者。吾足跡。二千。里。得五子錢。歸李

유우춘전(柳遇春傳)

조선 후기 | 유득공(柳得恭, 1748~1807)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였던 유득공이 저술한 한문 단편 소설로 『영재집(冷齋集)』 권 10에 실려 있다. 주인공은 서기공(徐旂公)을 통해 당대의 해금 명인 유우춘을 알게 되고, 후에 금대거사(琴臺居士)의 소개로 유우춘을 만난다.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법을 묻는 주인공에게 들려주는 유우춘의 자전적 이야기는 당시 예술가들의 현실적인 갈등과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다.



聞
風入松有韻
之意皆於終宴
翰林別曲

青山別曲

傳
柳遇春傳
旂公曉樂律
游而樂之得
間而大驚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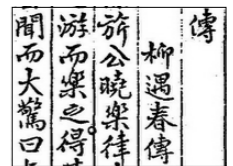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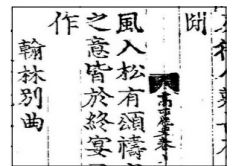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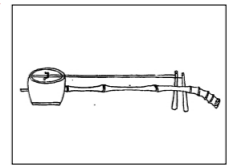
글과 그림 속의 해금



상춘야흥(賞春野興)

조선 18세기 후기 | 혜원(蕙園) 신윤복(申潤福, 1758~1817 이후) | 국보135호 | 간송미술관 소장

풍류(風流)의 즐거움을 그린 신윤복의 대표적인 풍속화다. 진달래꽃이 핀 봄날, 양반들과 기생, 악공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풍류문화를 엿볼 수 있다. 뒷모습이 보이는 대금, 거문고 연주자와 다르게 고개를 돌려 얼굴이 보이는 해금 연주자의 담담한 표정과 유소(流蘇, 기나 승교 따위에 달던 술)이 달린 활을 잡은 손 모양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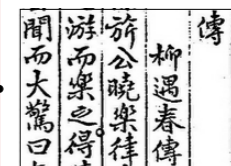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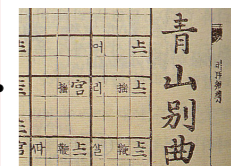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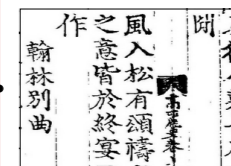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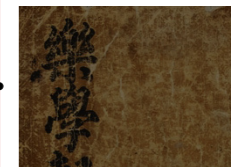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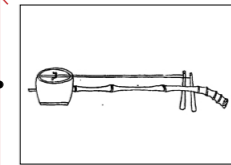
글과 그림 속의 해금



무동(舞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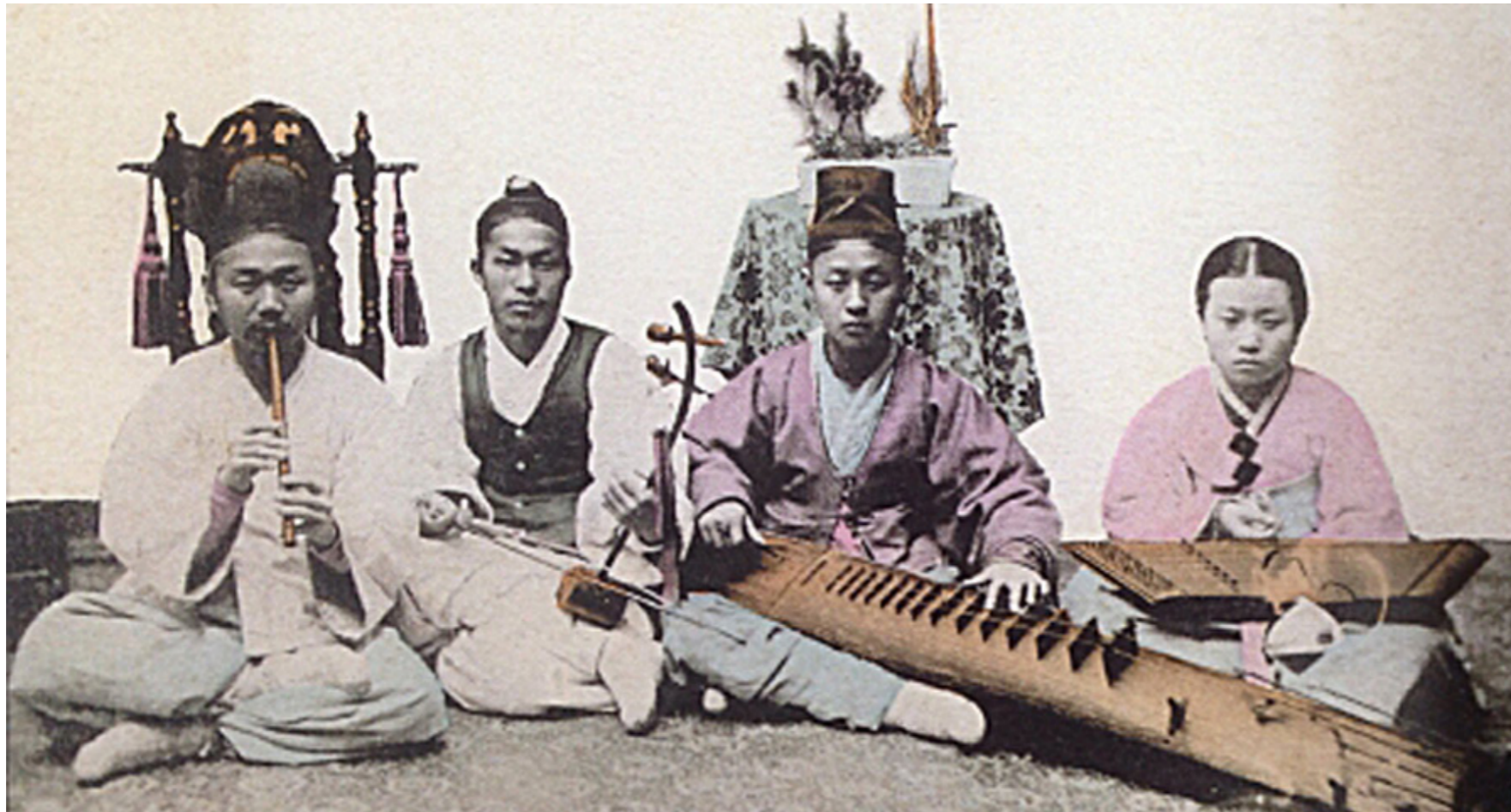
조선 18세기 |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1806경) | 보물 제 527호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단원 풍속도첩(檀園 風俗圖帖)에 실려 있는 김홍도의 대표적인 풍속화다. 왼쪽부터 좌고, 장구, 피리, 대금, 해금 순서의 삼현육각(三絃六角)으로 편성된 악사들이 흥겹게 연주하는 가운데 장삼에 띠를 두른 어린 무동이 춤을 추는 역동적인 장면을 표현했다. 갓과 털병거지를 쓴 서로 다른 신분의 악사가 뒤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해금 연주자의 왼손 방향이 반대로 그려진 점 또한 해학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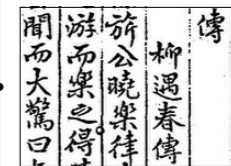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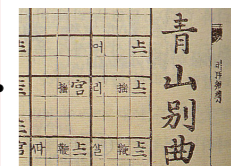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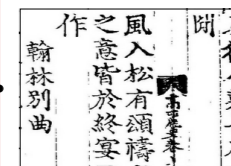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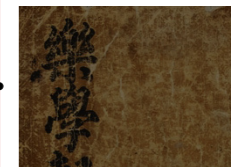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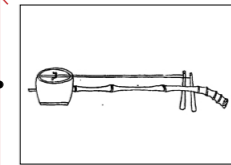
글과 그림 속의 해금



남자 연주자와 기생이 함께 연주하는 풍류

1910년대 | 국립국악원 도서 『근현대 한국음악 풍경』

근현대의 풍류 악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으로 왼쪽부터 단소, 해금, 거문고, 양금의 악사와 기생이 나란히 앉아 있다.





해금 재료

해금은 국악기 중 가장 다양한 재료로 구성된 악기다.
정악과 민속악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악기로 쓰이지만,
각 부분을 이루는 재료의 크기나 굵기 등에 따라 용도를 나누기도 한다.

악학궤범 속 해금 제작법 +



나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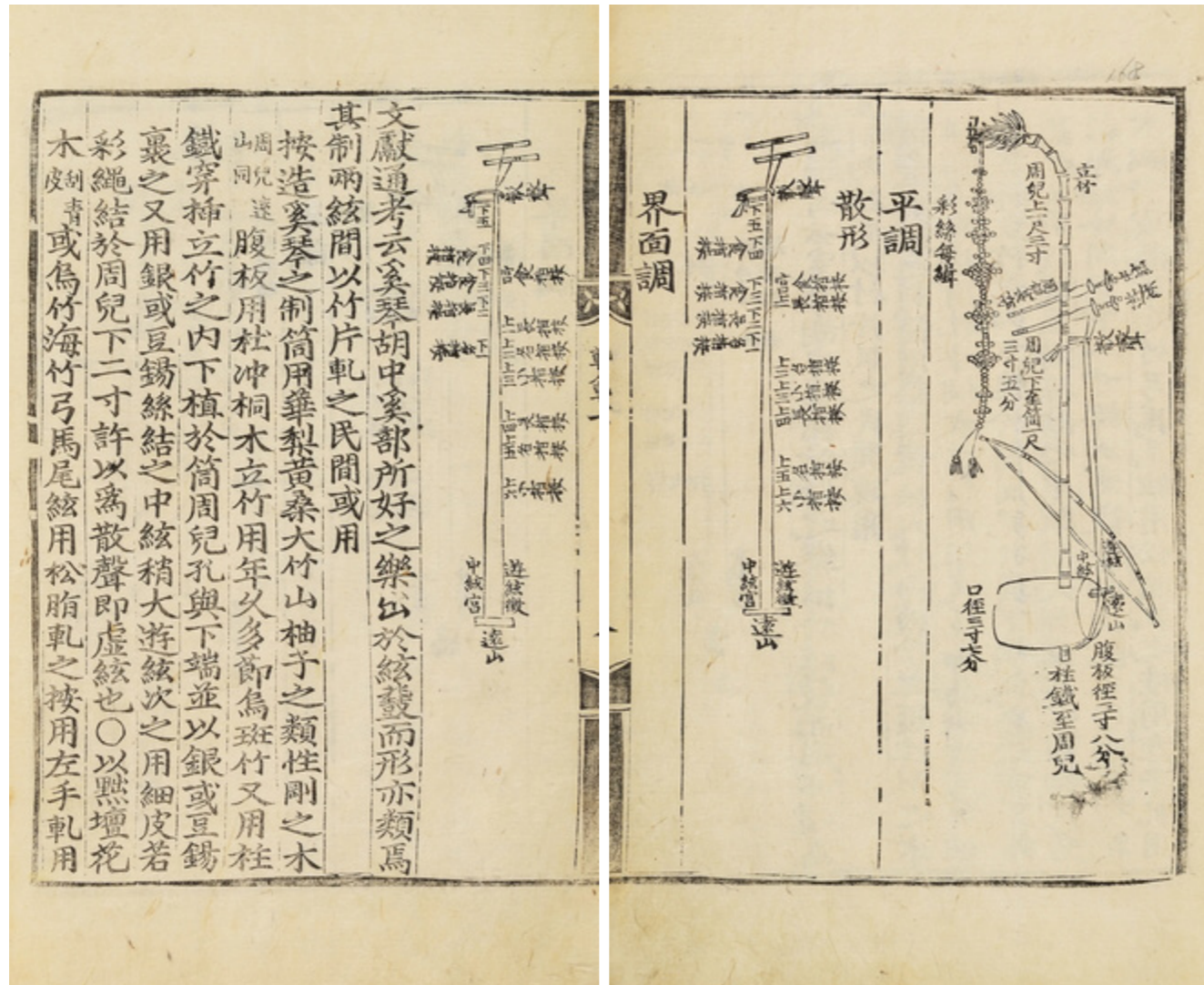
실 +



기타 재료 +



해금 재료



해금을 만들 때 공명통은 화리(모과나무)·황상(뽕나무)·대죽·산유자 같은 단단한 나무를 쓰고, 복판은 두충·오동나무를 쓴다. 입죽은 해묵고 마디가 많은 오반죽을 쓰고, 주철로 입죽 속을 뚫어 박아 아래통에 꽂는다. 주아를 꽂는 구멍과 아래 끝은 은이나 두석(합금 또는 아연)으로 씌우고, 또 은이나 두석의 실로 감아 맨다. 중현이 조금 굵고 유현은 그보다 가늘다. 가는 가죽 또는 채승(가는 줄)으로 주아 아래 2치쯤에서 두 줄을 동여매고 그것을 산성, 즉 허현으로 한다. 출단 화목이나 흑은 오죽·해죽으로 활대를 만들고, 말총으로 활시위를 만든다. 시위에 송진을 칠해서 줄을 마찰한다. 왼손으로 줄을 잡고 오른손으로 활을 긋는다. 향악에서만 연주한다.

『악학궤범 권 7』





해금 재료



오동나무



대나무



박

나무

대나무 |



5년 정도 자란 대나무의 뿌리는 결이 서로 엉켜 있어 갈라짐이 덜하고 유실되는 소리가 없이 전달이 잘되기 때문에 해금의 울림통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지름이 10cm 이상의 맹종죽 또는 왕죽을 쓴다. 손을 지지하는 입죽(立竹)은 본래, 해묵고 마디가 많은 대나무 중에서 황색과 검은 색이 반반 섞인 오반죽(烏斑竹)을 사용하는데, 무르고 약하다는 이유로 현재 단단한 황죽을 쓴다. 대나무 표면의 마디를 남긴 예전과 다르게 연주가 용이하도록 손이 닿는 부분의 마디를 부드럽게 갈아서 가공한다. 이 외에도 박달나무와 물푸레나무를 사용하는데, 이 나무들은 단단해서 대나무보다 가공이 쉽기 때문이다. 활대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관상수인 출단화목(黟檀花木)의 푸른 껍질을 벗긴 것을 쓰거나 요즘은 오죽(烏竹) 또는 해죽(海竹) 등의 시누대(가는 대나무)를 반듯하게 펴서 쓰





해금 재료



오동나무

나무

기도 한다.

오동나무 및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흑단, 장미목 등 |

3년 이상 그늘에서 건조한 오동나무는 울림통의 한쪽 면을 막아 현을 타고 내려온 소리를 공명시키는 복판의 재료로 사용된다. 보통은 밀도가 높고 단단한 나무를 주로 사용하지만, 울림의 정도, 재료나 칠의 두께에 따라서 무른 나무를 쓰기도 한다. 이 외에도 해금의 유현과 중현을 감고 풀어서 음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지닌 주아(周兒)는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흑단, 장미나무 등의 단단한 나무들을 재료로 삼는다.



대나무



박

박 또는 흑단, 대추나무 등 |

복판 위에 얹어 현을 지탱하며 소리를 전달해주는 원산(遠山)은 본래 조롱박의 꼭지를 둘로 나누어 가공 후 사용했지만 현재는 음식에 따라 단단한 흑단이나 산대추나무 등으로





해금 재료



나무

제작하거나 여기에 박과를 결합해 두겹 원산을 사용하기도 한다. 나무의 결이 세로로 제작되면 쪼개질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로로 제작한다. 원산과 복판의 재질 및 두께에 따라서도 울림이 달라진다.





해금 재료



실

명주실, 매듭 등 |

명주실은 끓는 물에 누에고치를 삶아 풀어낸 실로, 무늬 없이 옷감을 짜면 명주가 되고 고운 무늬와 광택이 나도록 짜면 비단이라고 한다. 이 실을 꼬아서 해금에 사용되는 명주실을 만드는데, 몇 가닥을 몇 번 꼬았는지에 따라 현의 탄력과 음색이 정해진다. 본래 손으로 가공하는 손사를 사용했지만 요즘은 기계로 가공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실 또는 매듭 등을 사용해 유현과 중현을 산성, 그리고 장식용 또는 손 가리개 용도로 쓰이는 낙양(落纓)을 만든다.



해금 재료



송진

기타 재료

옥, 쇠, 흙 |



해금의 울림통과 입죽 사이에 끼우는 '가락지'는 전통적으로 옥(玉)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단단한 흑단 또는 장미나무로 만들기도 한다. 울림통과 입죽을 연결해 고정시켜주는 용도로 주철(柱鐵, 철심)을 사용하는데, 먼저 울림통과 입죽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어 주철을 꽂을 공간을 만든 다음 감자비(甘子非, 금속재료의 주철을 고정시키는 부분)와 현을 걸어 고정한다. 『악학궤범』에는 주아를 꽂는 구멍과 아래 끝을 모두 은이나 두석(豆錫,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씌웠다는 기록이 있다. 가공된 울림통에는 소리의 울림을 좋게 하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 황토 흙을 발라준다.

말총(馬尾), 송진, 가죽 |

말총은 말의 꼬리털을 뜻하는 말로 윤기가 나고 튼튼하며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갓, 망건, 붓 등 생활용품과





해금 재료



송진

기타 재료

공예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해금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찰현악기의 활을 만드는 재료인 말총은 말꼬리를 빗어 곁을 다듬고 풀리지 않도록 양 끝을 묶어 고정한다. 송진을 묻혀서 사용한다. 송진은 소나무에서 나온 진액을 가공해서 만든 것으로, 말총에 송진을 묻혀야만 현과 마찰이 생겨 소리가 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재료이다. 또한 말총의 굵기에 따라 소리의 강도가 변하고, 송진 입자의 굵기와 활에 묻힌 정도에 따라 음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때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한다. 활의 손잡이는 가죽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활대와 말총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핀으로 고정한다. 가죽을 쥐었다 폄다 하면서 활의 탄력을 조절하며 이때 가죽의 재질이나 두께 및 넓이 등이 연주자의 손과 잘 맞아야 한다.





해금 제작 과정



11. 옷칠하기

제작순서 + 제작도구 +



해금 제작 과정



① 대나무 뿌리 고르기

3년에서 5년 정도 자란 대나무 뿌리를 약 1년간 그늘에서 건조한 후 뿌리 조직의 밀도, 모양, 마디 수 등을 기준으로 울림통에 적합한 것을 선별한다.



② 울림통 겉면 다듬기

건조된 대나무 뿌리를 11cm 정도의 길이로 자른다. 표면을 끌로 고르게 깎고, 대패와 줄로 부드럽게 다듬는다.





해금 제작 과정



③ 울림통 속 다듬기

뿌리의 속을 막고 있는 막을 제거하고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다듬는다.



④ 울림통에 구멍 뚫기

겉과 속이 다듬어진 울림통의 아래위를 구분해서 구멍을 낸다.



해금 제작 과정



⑤ 입죽 펴기

약 70cm 길이의 대나무를 입죽으로 사용하며, 뿌리 부분을 톱으로 다듬은 후 열을 가해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흰 부분을 곧게 펴준다.



⑥ 입죽에 구멍 뚫기

주아를 꽃을 구멍과 주철을 넣어 울림통과 연결할 구멍을 만들어준다.



해금 제작 과정



⑦ 주아만들기

박달나무와 대추나무 등을 알맞은 크기로 자른 후 여러 차례 깎고 다듬어 주아의 형태를 만든다.



⑧ 활대 제작

시누대의 겉면에 열을 가해 곧게 펴고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갈라지지 않도록 양 끝에 금속으로 된 봉을 끼우고 칠을 한다.



해금 제작 과정



⑨ 말총 가공

적당한 양의 말총을 골라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만든 후 빗으로 고르게 빗어 결을 다듬고 곧게 편다. 그리고 말총의 양 끝을 실로 묶고 한쪽은 활대에 고정할 수 있도록 철사를 걸고, 다른 한쪽은 손잡이가죽과 연결할 수 있게 나비모양 등으로 매듭을 만든다.



⑩ 황토 칠하기

좋은 소리와 긴 수명을 위해 울림통 바깥쪽에 황토를 여섯 번 정도 발라주는데, 울림통 안쪽은 석간주(붉은 흙에서 산출한 안료) 또는 황토를 바른다.



해금 제작 과정



⑪ 옷칠하기

옷칠은 악기의 수명뿐 아니라 좋은 소리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번 바르고 하루 말리기를 일곱 번 정도 반복한다. 칠이 완성되면 자개(금조개 껍데기 장식)나 금장식을 박아 넣기도 한다.



⑫ 복판 붙이기

나이에 간격이 촘촘하고 밀도가 높은 오동나무를 골라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울림통의 한쪽 면에 붙인다.



해금 제작 과정



⑬ 복판 깎기

복판은 두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데, 두꺼울수록 작지만 안정감 있고 단단한 소리가 나며, 얇을수록 거칠지만 크고 울림 있는 소리가 난다.



⑭ 원산 만들기

박 쪽지나 흑단, 산대추나무 등을 깎아 원산의 모양을 만든 후 현을 고정하기 위한 홈을 파고 사포로 원산의 바닥을 평평하게 다듬어 완성한다.



해금 제작 과정



⑮ 명주실 꼬기

여러 가닥의 명주실을 하나로 꼬는 작업으로 꼬인 줄 세 줄을 하나로 합쳐서 다시 꼰 후, 끓는 물에 충분히 찌고 건조시킨다. 유현(바깥줄)은 얇게, 중현(안줄)은 유현보다 굵게 꼰다.



⑯ 주아에 줄 감기

완성된 줄은 두 개의 주아에 촘촘히 감는다. 유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고, 중현은 시계 방향으로 감는다.



해금 제작 과정



⑰ 주아 조립하기

줄이 감긴 주아를 미리 뚫어놓은 입죽의 두 구멍에 꽂는다. 유현의 주아는 아래에, 중현의 주아는 위에 꽂는다.



⑱ 울림통과 입죽 연결하기

울림통의 아래에 감자비와 함께 주철을 꽂아 입죽과 연결한다. 주아에 감긴 현을 내려 감자비에 걸면 울림통과 입죽이 단단하게 고정된다.



해금 제작 과정



⑱ 원산엮기

감아내린 두 현과 복판 사이에 원산을 엮는다. 위치에 따라 음량과 음색이 변하므로 마지막 조율시 원산을 위 아래로 옮겨 조절한다.



⑳ 활 끼우고 조율하기

활의 손잡이 가죽이 오른쪽을 향하게 놓고, 말총을 유현과 중현 사이에 끼워 넣는다. 마지막으로 각 부분이 바르게 조립되었는지 확인한 후 주아를 돌려 유현과 중현의 음정을 맞춘다.



해금 제작 과정



장인이 해금을 만들 때 사용한 도구들이다. 녹슨 톱과 가위 그리고 닳아서 이미 짧아진 칼이 세월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금은 표면에 굴곡이 많고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장인의 섬세한 손길이 요구되며, 해금을 이루는 재료 또한 다양해서 웬만한 악기를 만드는 도구들이 거의 모두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울림통의 크기만큼 대나무 뿌리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듯 녹슨 도구들에서 장인의 인내와 끈기를 느낄 수 있다.



二

살펴보기

해금의 생김새

양경숙 명인이 소개하는 해금

김영재 명인이 소개하는 해금

연주 방법



해금의 생김새

활 +

주아 +

유현과 중현 +

산성 +

입죽 +

원산 +

복판 +

주철과 감자비 +

울림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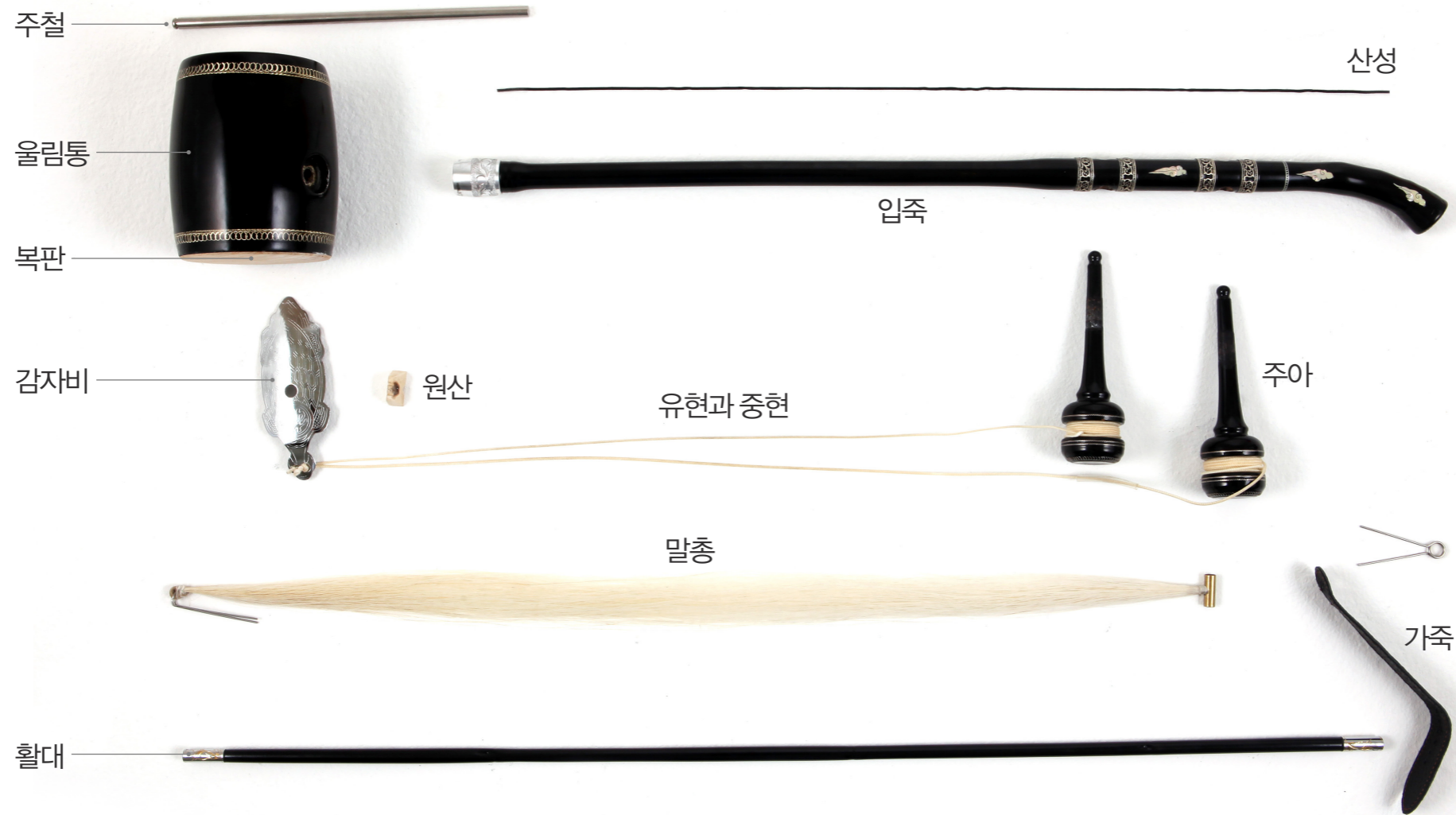
← 해금을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

분해사진 +

전체 구조 해금은 울림통, 입죽, 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울림통은 대나무 뿌리의 모양과 크기 등에 따라 각각 고유한 성음(聲音)을 지닌다. 울림통 위로 입죽을 연결하고, 유현과 중현을 감은 두 주아를 조립해 음정을 조율한다. 주아에 두 줄의 현을 감아 내려 맨 아래 감자비에 걸치면 울림통과 입죽이 단단히 고정된다. 활을 유현과 중현 두 현 사이에 끼워 문질러 소리를 낸다.



해금의 생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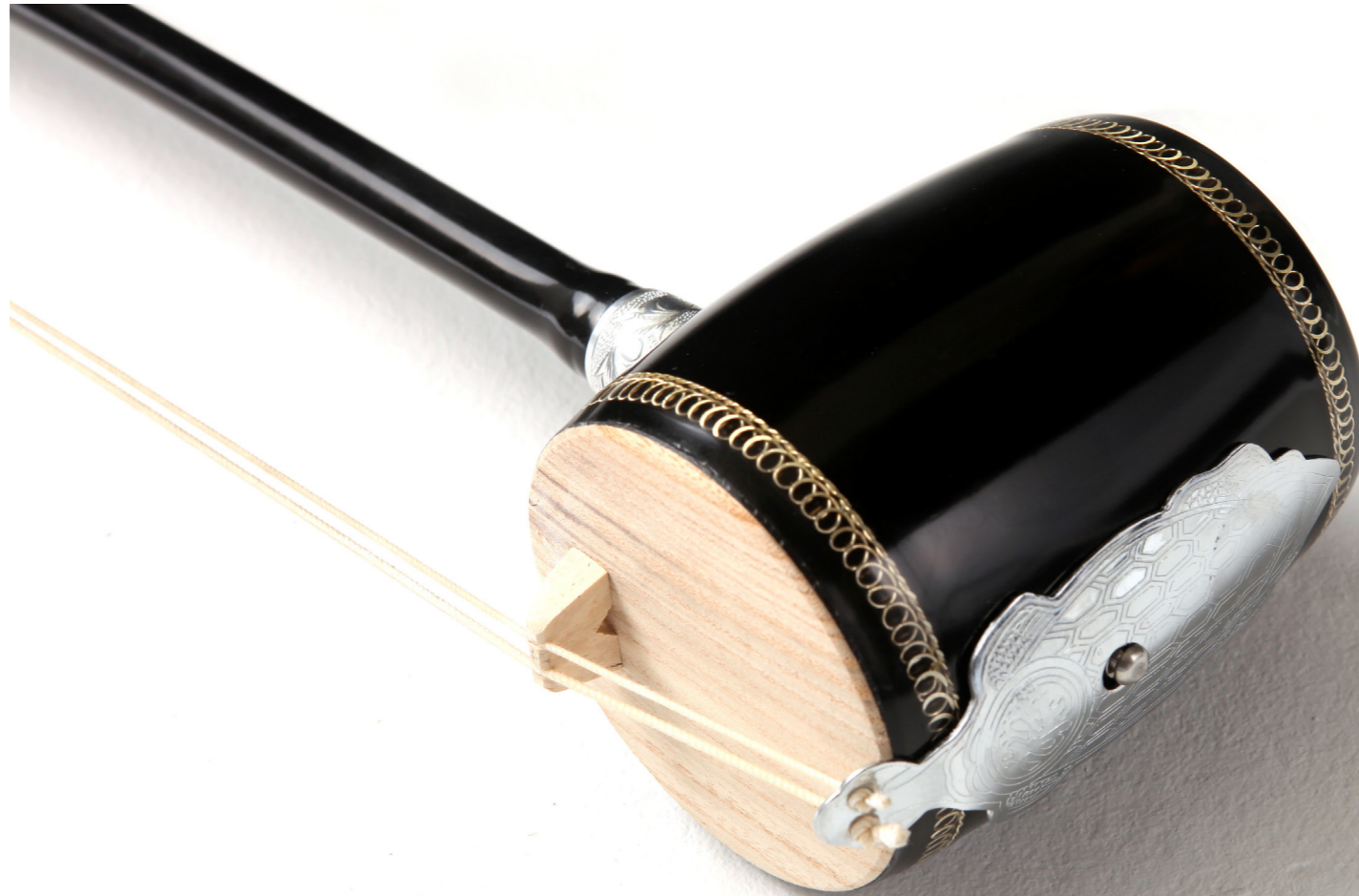


전체 구조

해금은 울림통, 입죽, 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울림통은 대나무 뿌리의 모양과 크기 등에 따라 각각 고유한 성음(聲音)을 지닌다. 울림통 위로 입죽을 연결하고, 유현과 중현을 감은 두 주아를 조립해 음정을 조율한다. 주아에 두 줄의 현을 감아 내려 맨 아래 감자비에 걸치면 울림통과 입죽이 단단히 고정된다. 활을 유현과 중현 두 현 사이에 끼워 문질러 소리를 낸다.



해금의 생김새



울림통

해금의 울림통은 현과 말총이 마찰하며 만드는 소리를 확대시킨다. 울림통의 모양, 크기, 두께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만들어진다. 위로 입죽을, 아래로 주철과 감자비를 연결해 현을 고정한다.





해금의 생김새



입죽

입죽은 연주자가 왼손으로 악기를 쥐고 연주를 하는 부분이다. 울림통 위에 세로로 세워서 연결해 주아를 조립한다.



해금의 생김새



복판

복판은 울림통 한쪽을 막아 현을 엮어 소리를 울림통으로 전달한다. 결이 단단한 오동나무를 사용하며, 복판의 두께에 따라 음색이 달라지므로 정악과 민속악 또는 신곡 등에 따라 두께를 조절한다.





해금의 생김새



원산

원산은 현의 소리를 복판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원산의 위치에 따라 음량이 변하는데, 울림통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소리는 작고 탁해지며, 울림통 중앙으로 갈수록 크고 우렁찬 소리가 난다. 울림통의 재료와 두께에 따라서도 음색이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연주자의 연주곡이나 원하는 음색에 따라 선별해 사용한다.





해금의 생김새



주아

주아는 유현과 중현의 두 현을 감아 음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주아를 감으면 음정이 높아지고 풀면 음정이 낮아진다.



해금의 생김새



유현과 중현 유현과 중현의 음정 간격은 완전 5도로, 유현은 가늘고 음정이 높으며 중현은 유현에 비해 굵고 음정이 낮다.



해금의 생김새



산성

산성은 유현과 중현을 묶어서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산성을 묶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해금의 생김새



활

해금의 활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연주자가 가죽을 손에 쥐고 쥐었다 폈다 하며 활대를 밀어 말총의 탄력을 조절한다. 활대와 말총, 손잡이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금의 생김새



주철과 감자비

주철은 입죽과 울림통을 연결해준다. 감자비에는 주로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뜻을 지닌 자라(거북이) 문양을 새긴다.



양경숙 명인이 소개하는 해금



명인 약력 + 인터뷰 + 연주곡 듣기 +



양경숙 명인이 소개하는 해금



양경숙

- 국립국악원 정악연주단 악장 역임
- 추계예술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강사준, 김종희, 김천흥, 서용석, 조운조, 최태현, 흥옥미 사사
-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
-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

| 주요저서 및 음반 |

- 1995 악보집 『해금산조』
- 2003 음반 〈양경숙의 해금 - 여민락〉
- 2005 음반 〈양경숙의 해금 - 줄풍류 영산회상〉
- 2008 음반 〈양경숙의 해금 - 취타, 관악영산회상〉



양경숙 명인이 소개하는 해금



정악에서의 해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해금은 예로부터 ‘비사비죽(非絲非竹)’이라고 해서 현악기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결국은 관악기도 되고 현악기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관악기를 만드는 대나무와 현악기를 만드는 명주실을 사용해서 만든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현악 합주에서 해금은 관악기와 현악기의 소리가 잘 어우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관악기가 숨을 쉬거나 현악기의 음이 끊어진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해금은 관악 합주에도 편성되고 관현악 합주에도 편성되는 두루두루 널리 쓰이는 악기입니다.



양경숙 명인이 소개하는 해금

해금은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해금은 음역이 넓고 표현의 폭이 아주 넓기 때문에 전통음악인 정악이나 민속악뿐만 아니라 요즘의 크로스오버 뮤직이나 재즈, 또는 현대음악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금의 주법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해금은 서양의 현악기와는 다르게 지판이 없기 때문에 음의 표현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음을 흘러내리거나 밀어 올리거나 또 많이 눌러서 음폭을 넓게 변형시키며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오른손의 활대도 바이올린이나 첼로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신축성 있게 당겼다가 또 느슨하게 풀었다가 자유자재로 변형시키면서 연주하기 때문에 그만큼 표현의 폭도 넓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해금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금은 저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니면 10대 때부터 여태까지 수십 년간을 함께해온 동반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해금을 배울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하다가 20대, 30대, 계속 나이가 들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느낌? 아직도 평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숙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숙제를 하나 하고 나면 그것을 해결했다는 보람과 성취감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숙제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같이 주는, 끝나지 않는 동반자, 끝까지 가야 하는 그런 짝, 그렇습니다.



양경숙 명인이 소개하는 해금

해금 정악을 잘 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악은 슬퍼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고 기뻐도 너무 넘치게 기뻐하지 않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정악 연주를 잘하려면 바른 자세와 고른 호흡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훈련한다면 악기 연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복잡하고 상처도 많은 일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경숙 명인이 소개하는 해금



양경숙 명인 연주 영상 <천년만세 중 계면가락도드리>





김영재 명인이 소개하는 해금



명인 약력 + 인터뷰 + 연주곡 듣기 +



김영재 명인이 소개하는 해금



김영재

- 1947년 경기도 용인 출생
- 지영희, 신래동 등 사사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원장 역임
-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

| 주요수상 경력 |

- 1973년 국민훈장 석류장
- 1980년 문교부 장관 표창장 수여
- 1986년 전라남도지사 공로패 수여
- 2002년 KBS국악대상 대상(관악상, 작곡상)
- 2015년 제22회 방일영국악상 수여

| 주요음반 |

- 1991년 김영재 해금작품집 1
- 1996년 김영재 <반도의 한>
- 2008년 <김영재류 해금산조>-긴산조
- 2011년 김영재 국악인생 50주년 기념음반 <집대성음>



김영재 명인이 소개하는 해금



민속악에서 해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해금은 우리의 악가무 전통예술 분야 중에서 음악 분야, 특히 대풍류, 취타풍류 그리고 춤이나 노래 반주 등 전 분야에서 안 쓰이는 곳 없이 다양하게 쓰이는 악기지요. 약방의 감초처럼 골고루 쓰입니다.

현대에 와서 해금의 역할은 어떻게 변했나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공연의 양상도 상당히 달라졌는데요, TV나 뮤지컬, 오케스트라 등 여러 가지의 형태가 옛날과





김영재 명인이 소개하는 해금

아주 많이 달라져서 해금 연주 또한 그에 맞게 콘체르토(협주곡)나 독주곡 등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 해금의 독창성을 살려 연주자들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악과 민속악에서의 해금 연주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악과 민속음악의 연주법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지요. 정악은 나름대로 운지법 등의 정통성을 지켜야 될 것 같고, 민속음악은 줄의 흔들림, 농현이나 주법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음악마다 그 특징이 있으니깐 그런 것들을 잘 살려내면 정악과의 구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금 연주자로서의 선생님의 삶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네, 해금을 처음 봤을 때는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무속이라고 해서 굿하는 데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할아버지께서 연주하는 악기를 보고 자꾸 만지고 싶고 해보고 싶었는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지영희 선생님을 처음 뵈고, 그 악기를 전공 악기로 택하면서 쪽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해금)를 하면서 상당히 흥미를 느끼고 중, 고등학교 때에도 쪽 해오다가 작곡가이신 김동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학교 음악교사로 계시다가 경희대학교 교수님으로 가시면서 저에게 “국악만 하지 말고 서양 음악 공부도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학교로 가서 작곡 공부를 하면서 서양 음악에 대한 공부를 넓혀갔습니다. 30, 40대에는 학교에서 주로 교육을 해왔고, 나이가 들어서 일반인이나 대학원 박사 과정 학생들을 교육하며 해외 공연 등 무대 경험을 쌓기 위해 학생들을 데리고 재



김영재 명인이 소개하는 해금

능기부처럼 공연을 다니는 보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해금 민속악을 연주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민속악은)지방색이 좀 강한데요, 전라도의 계면 성음이라고 해서 많이 슬픈 대목이 있어요. 그런 농현법, 그다음에 서도 소리의 아주 격한 농현법, 경상도의 메나리법, 제주도나 이런 어요, 농요 등 민요의 선법에 대한 농현법, 대풍류나 길군악, 취타 등 기악곡으로써의 농현법, 이런 것들이 전부 줄의 흔들림의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공부들을 깊이 해야겠지요.

선생님과 같이 해금연주자로서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전통음악을 깊이 이해하고 연습도 많이 해야 하고, 우리 음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의무감 같은 것도 있어야 하고, 후세들에게 잘 전달해줘야겠다는 생각도 있어야지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과거의 것이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우리 조상님들이 즐겨했고 지켜왔던 고귀한 유산들을 잘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영재 명인이 소개하는 해금



김영재 명인 연주 영상 <지영희류 해금산조 중 중중모리>



살펴보기



해금 연주 기본 자세

왼손은 암죽과 수직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안고 잡고 연주한다.





해금 연주 방법



정악 연주 + 정악은 호흡을 통해 감정을 절제하며 연주한다. 왼손으로 현의 음정을 짚으며, 추성, 퇴성 등 다양한 농현과 시김새를 만든다. 오른손은 활을 쥐고 음의 강약이나 빠르기 등 표현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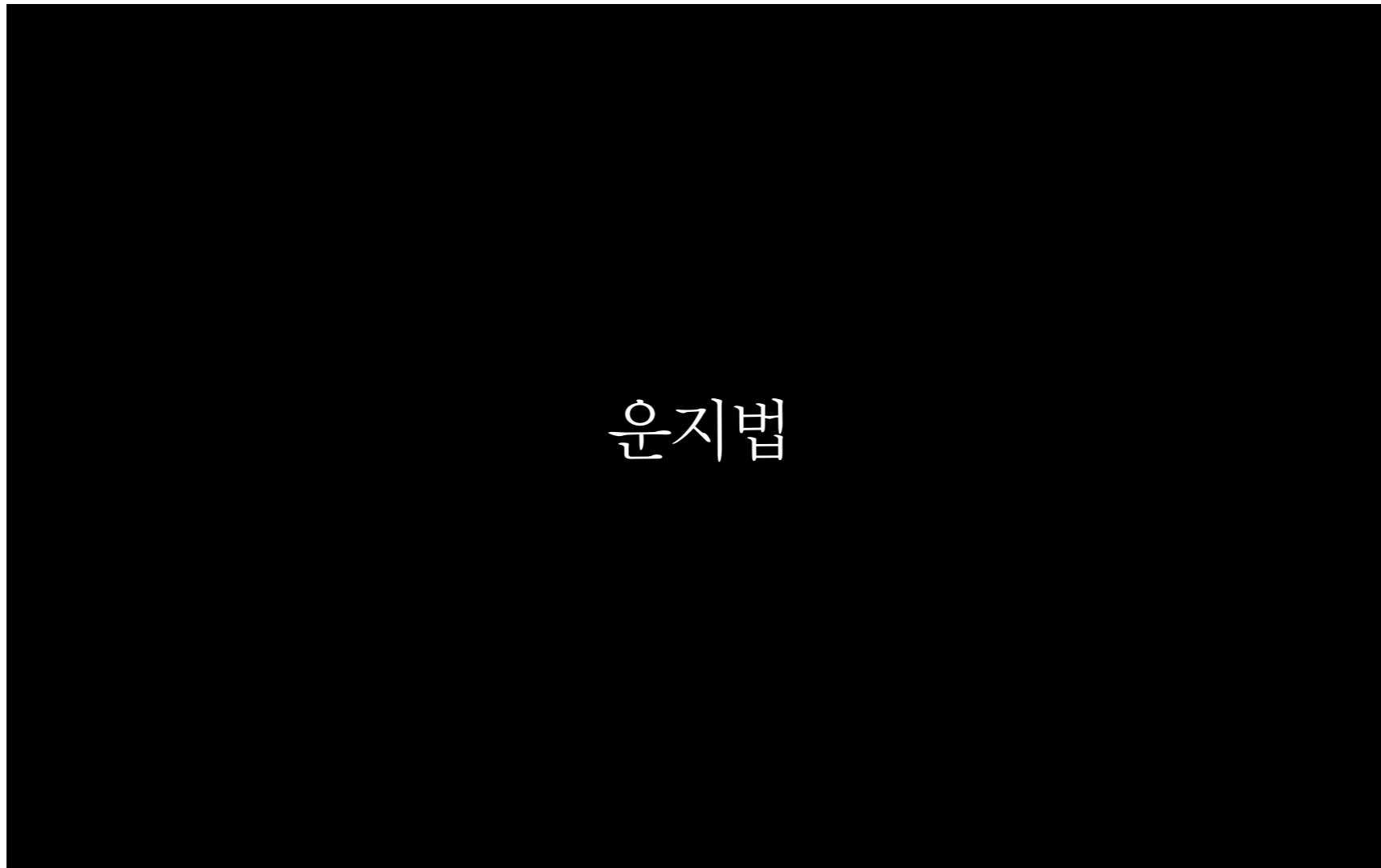


민속악 연주 + 민속악은 장단을 따라 선율에 감정을 실어 자유롭게 표현한다. 왼손은 우조, 평조, 계면조 등 조(調)의 길에 맞는 농현과 시김새를 만들고 성음을 표현한다.



해금 연주 방법

해금을 연주하는 기본 왼손 주법이다. 현을 누르고 풀러 음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정확한 음감이 필요하다.



정악 연주

운지법

운궁법

농현

퇴성

추성

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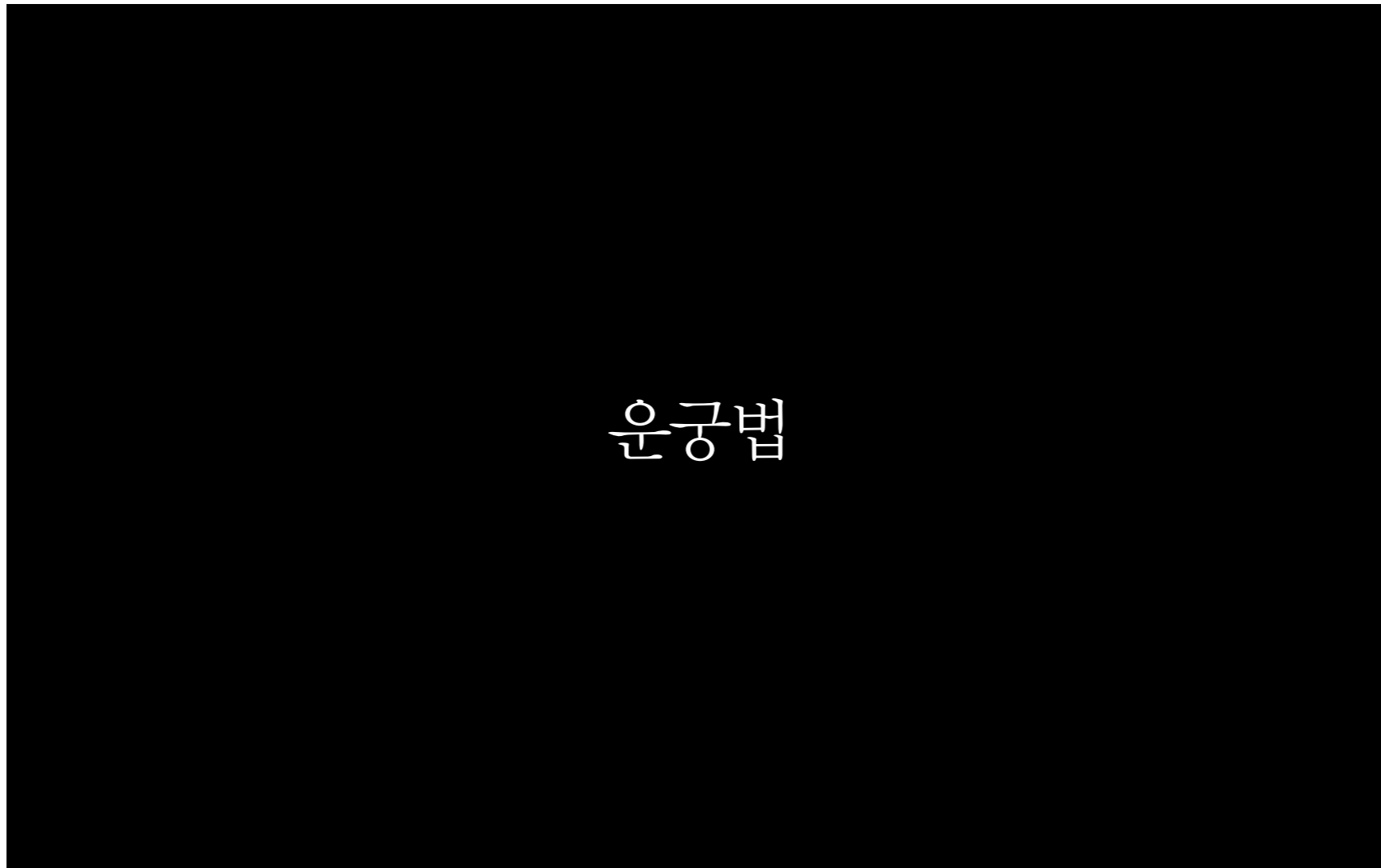
잉어질





해금 연주 방법

해금 연주의 기본 오른손 주법으로, 강약과 빠르기 등의 표현을 만들어낸다.



정악 연주

운지법

운궁법

농현

퇴성

추성

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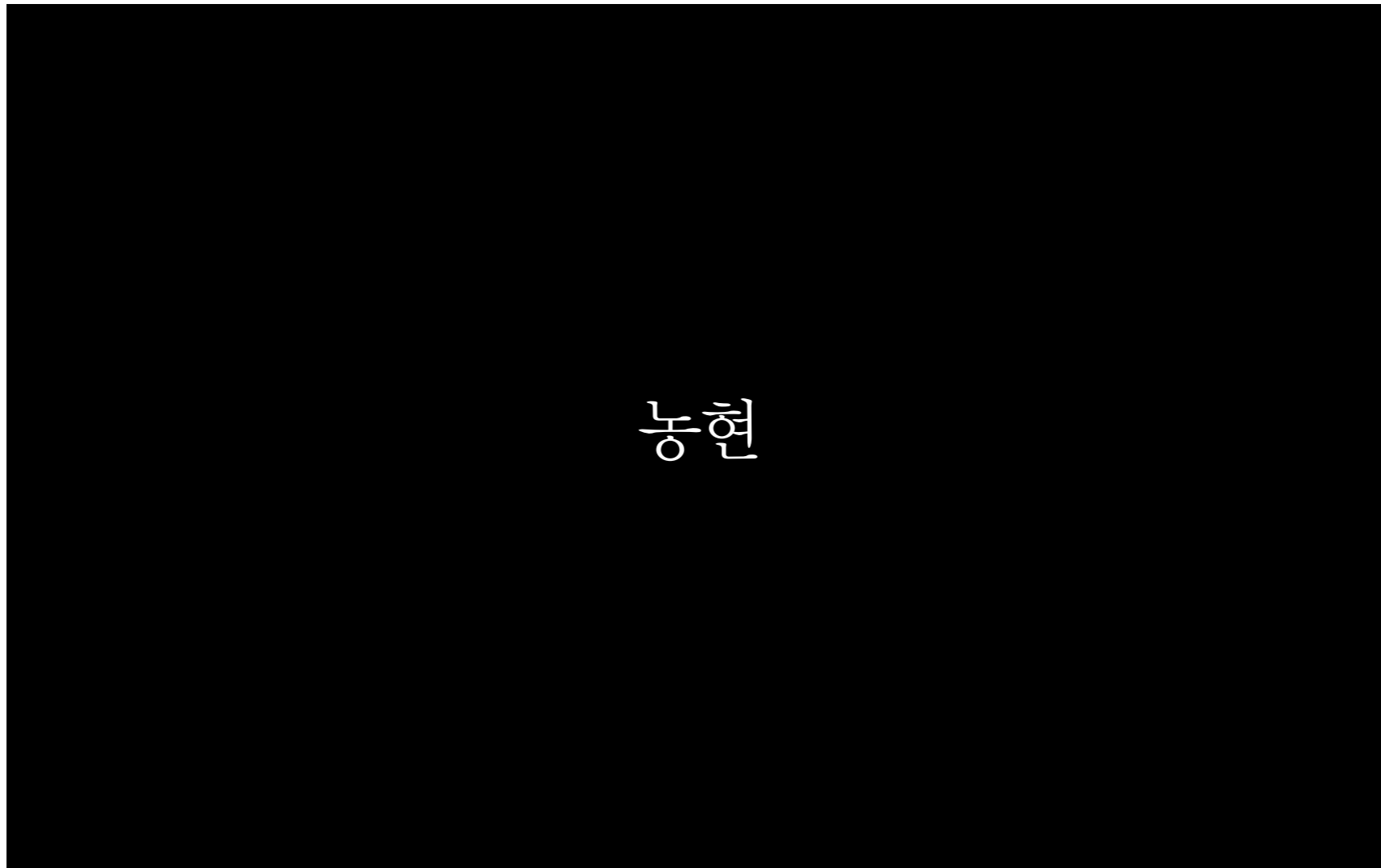
잉어질





해금 연주 방법

현을 쥐었다 폈다 하며 음의 변화를 준다. 음의 폭과 빠르기에 따라 다양한 농현이 표현된다.



정악 연주

운지법

운궁법

농현

퇴성

추성

전성

잉어질





해금 연주 방법

현을 풀어 음을 흘려 내리며, 음의 끝을 약간 올려 여민다. 다음 음으로의 연결을 부드럽게 해준다.



정악 연주

운지법

운궁법

농현

퇴성

추성

전성

잉어질





해금 연주 방법

음의 끝을 한 음 높은 음까지 눌러 올린다. 음의 진행을 극적으로 만들어준다.

추성

정악 연주

운지법

운궁법

농현

퇴성

추성

전성

잉어질





해금 연주 방법

음을 강하고 짧게 흔들어 다음 음으로 진행한다. 한 번 또는 두 번 빠르게 떨어준다.



정악 연주

운지법

운궁법

농현

퇴성

추성

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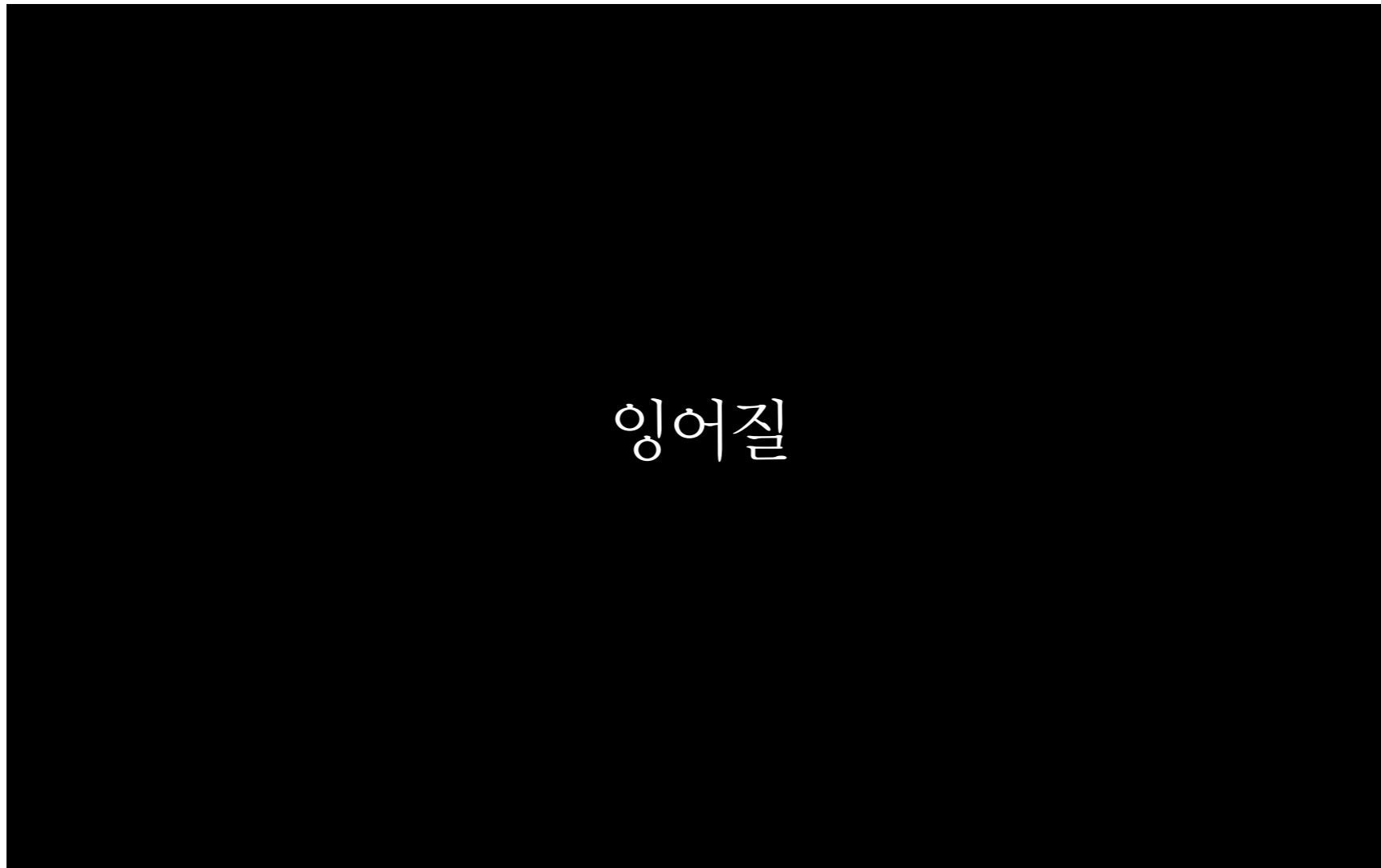
잉어질





해금 연주 방법

해금에만 있는 독특한 연주법으로, 음을 길고 힘 있게 뽑아 한 음 위 음을 짧게 낸 후 다음 음으로 진행한다.



잉어질

정악 연주

운지법

운궁법

농현

퇴성

추성

전성

잉어질





해금 연주 방법

해금은 활과 현의 섬세한 균형이 좋은 연주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연주 자세

민속악 연주

연주 자세

농현

청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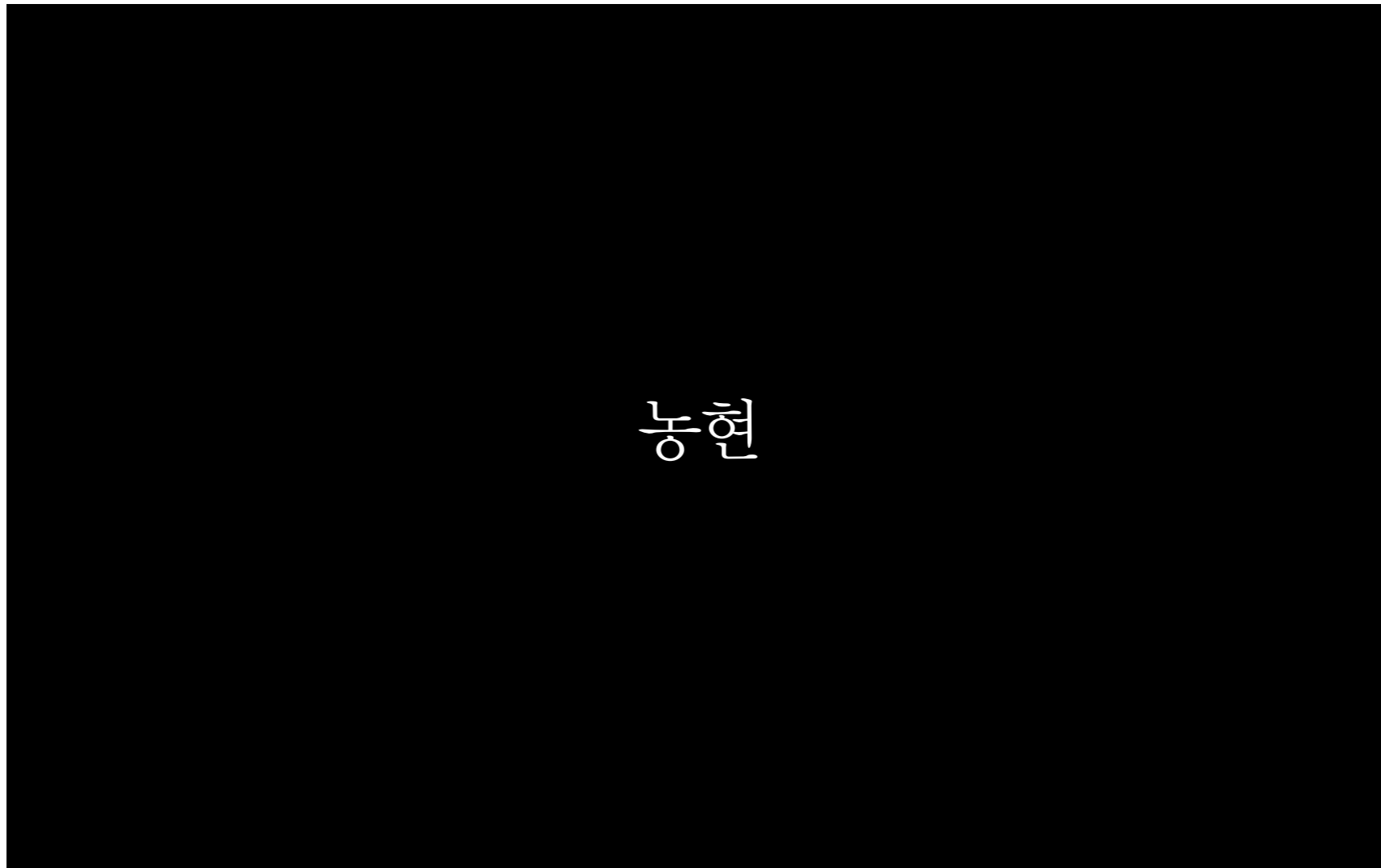
성음





해금 연주 방법

민속악의 농현은 정악에 비해 떨림의 폭과 빠르기에 변화가 많고 즉흥적이다. 선율의 조(調)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며, 곡의 분위기나 성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민속악 연주

연주 자세

농현

청

조

성음





해금 연주 방법

청은 중심음을 뜻한다. 해금은 보통 소리꾼이나 기준이 되는 악기에 청을 맞추며, 그에 따라 왼손의 위치와 농현이 정해진다.



민속악 연주

연주 자세

농현

청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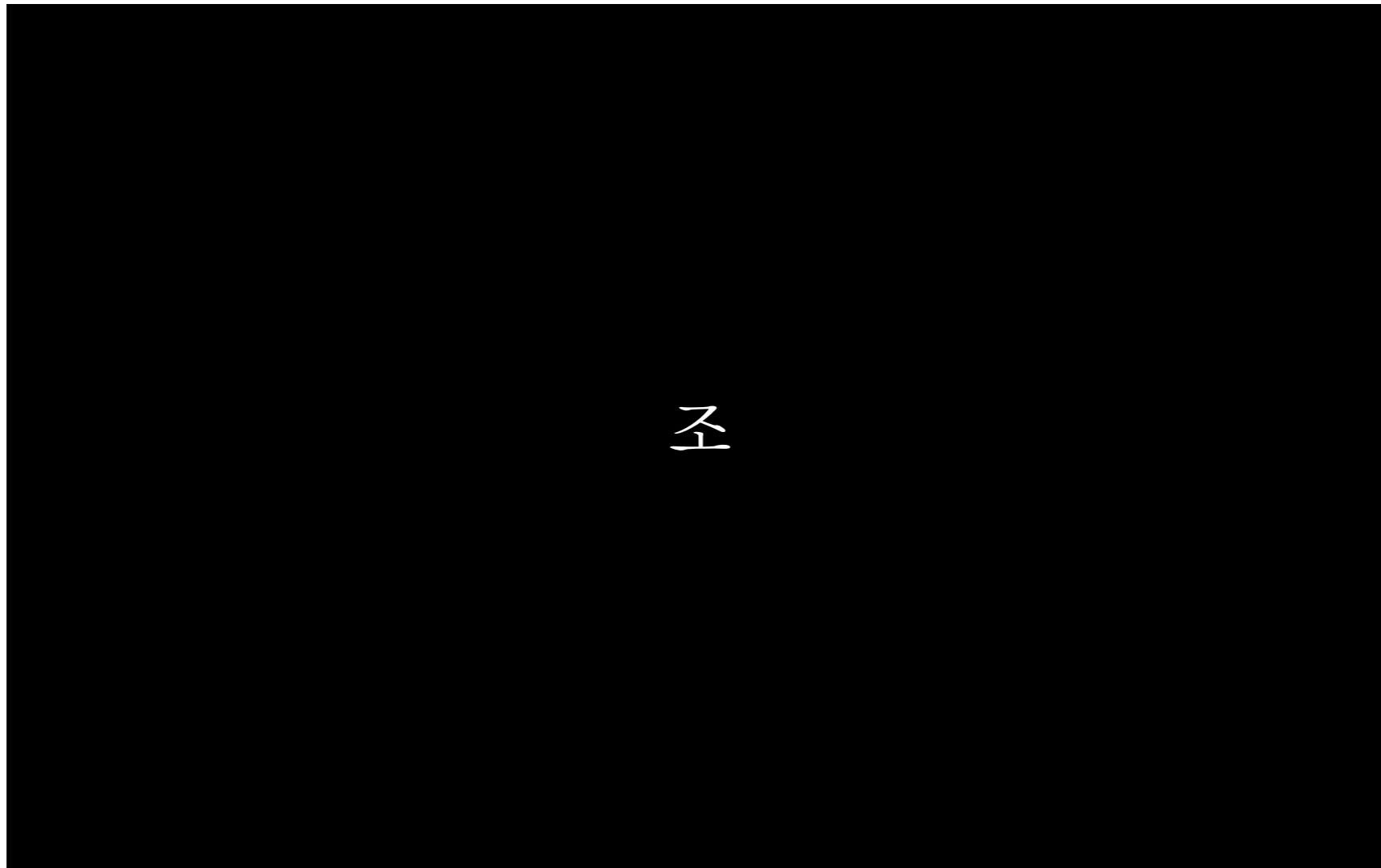
성음





해금 연주 방법

조는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뿐 아니라 청과 농현 등이 정해지는 기준이 된다. 특히 지역적인 특성이 많이 나타나며, 대표적인 조로는 계면조, 평조, 우조 등이 있다.



민속악 연주

연주 자세

농현

청

조

성음



해금 연주 방법

성음은 소리의 성질을 말하며, 음질이나 음색 또는 발성법, 시김새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같은 선율을 연주하더라도 조에 따라 다양한 성음이 표현되며, 연주자의 성향과 기량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성음이 나타난다.



민속악 연주

연주 자세

농현

청

조

성음



三

체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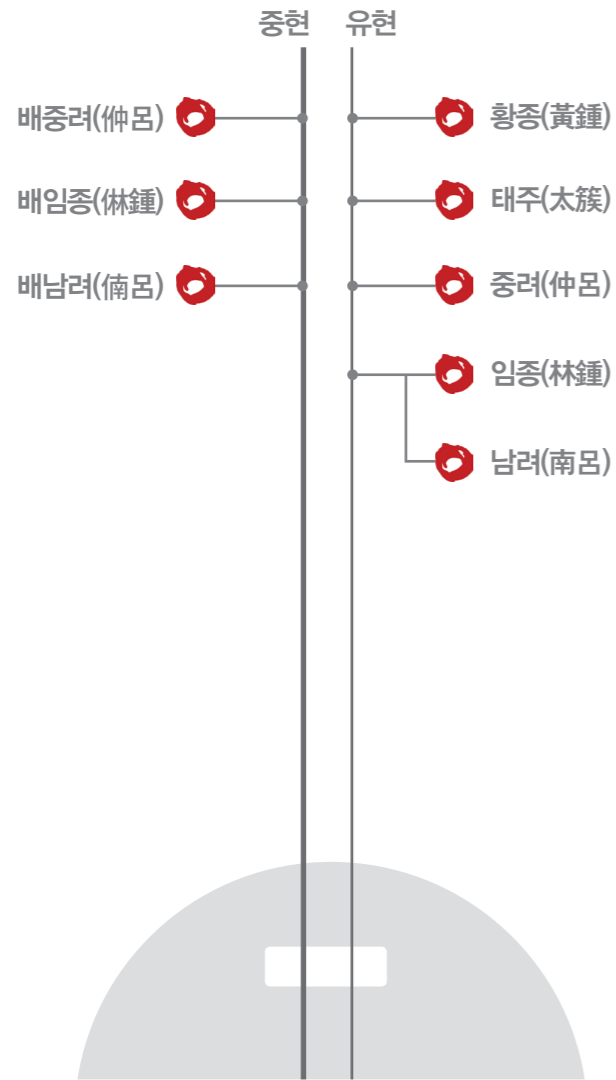
음계 및 개별음

감상하기

현장체험



음계 및 개별음



붉은 원을 터치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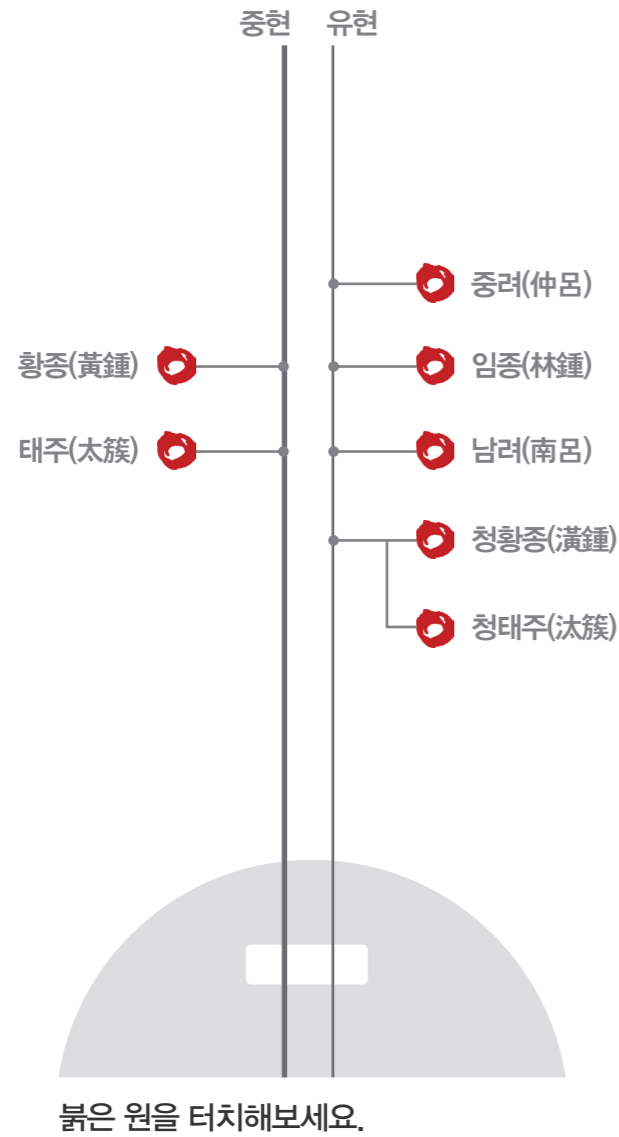
1지(指): 황종(黃鍾) **1지(指): 중려(仲呂) +**

연주하는 선율의 음역에 따라 기준이 되는 1지(첫번째 손가락)의 위치가 바뀐다.

정악 민속악 서양음계



음계 및 개별음



1지(指): 황종(黃鍾) + 1지(指): 중려(仲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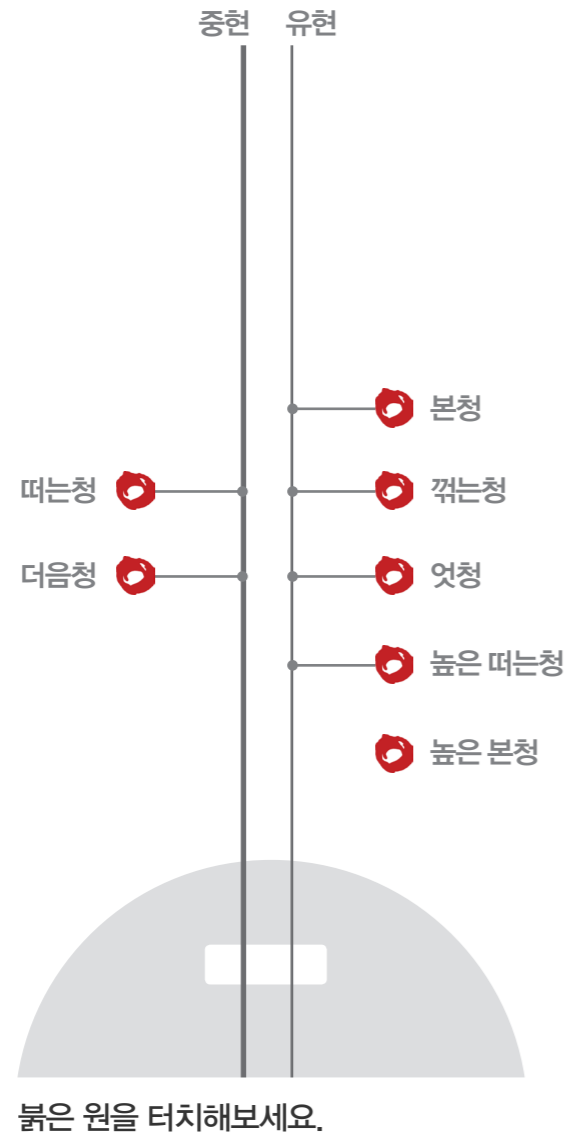
연주하는 선율의 음역에 따라 기준이 되는 1지(첫번째 손가락)의 위치가 바뀐다.

황종 태주 중려 임종 남려 청황종 청태주

정악 민속악 서양음계



음계 및 개별음



1지(指): 본청

계면조를 이루는 아래의 다섯 음은 판소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금에서는 떠는청, 본청, 꺾는청의 세 음이 주로 사용된다.

떠는청 더음청 본청 꺾는청 엇청 높은 떠는청 높은 본청

정악 민속악 서양음계



음계 및 개별음



해금은 표기된 음정 이외에도 더 많은 음을 낼 수 있으며 악기의 특성상 미세한 음정도 표현할 수 있다.

붉은 원을 터치해보세요.



체험하기



감상하기

자진모리
서용석류해금산조중

지영희류해금산조

긴아리랑

민속악

군악
중광지곡중

하현보드리
중광지곡중

전악





현장체험

전시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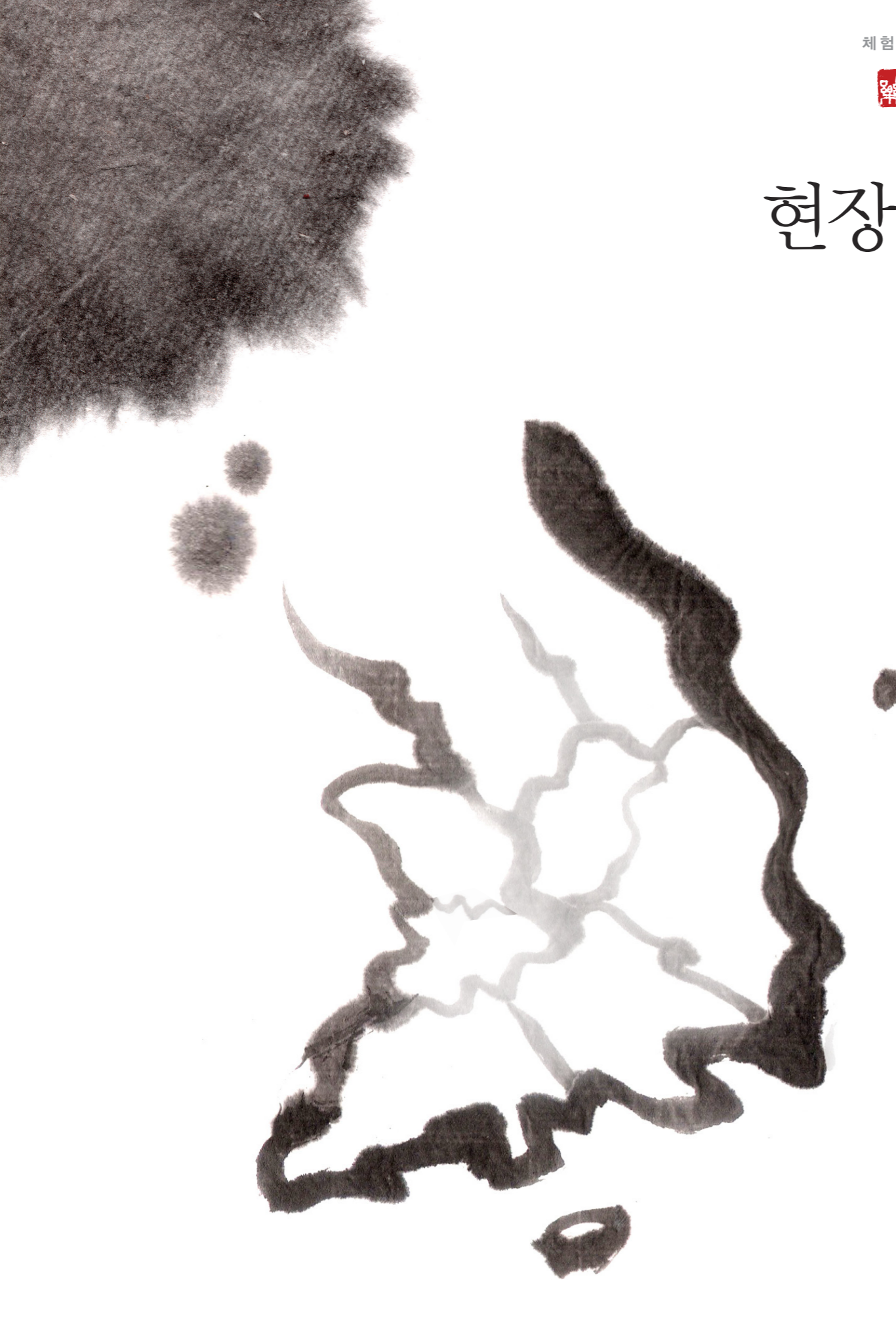
- + 국립국악원
- + 국립국악박물관
- +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 + 기산국악당
- + 지영희 국악관

악기 제작

- +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 +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악기 체험

- +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 + 국립극장 전통예술 아카데미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700



국립국악원 토요일상설무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국립국악원의 상설국악공연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춤과 노래, 악기 연주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예능 종목도 만나볼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80분가량, 관람 연령은 취학아동 이상이다. 24세 이하 성인과 경로 및 동반 1인, 장애인 및 동반 2인 등의 경우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연 문의는 02) 580-3300으로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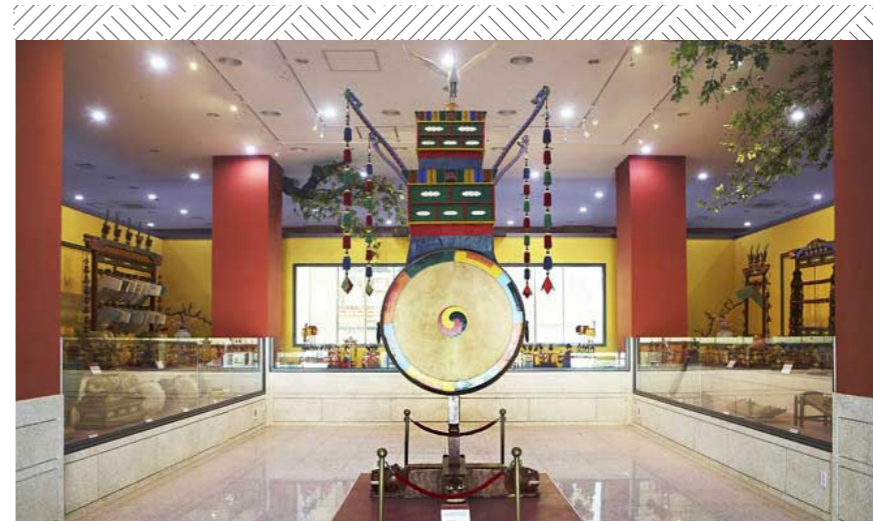
www.gugak.go.kr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700



국립국악박물관 <악기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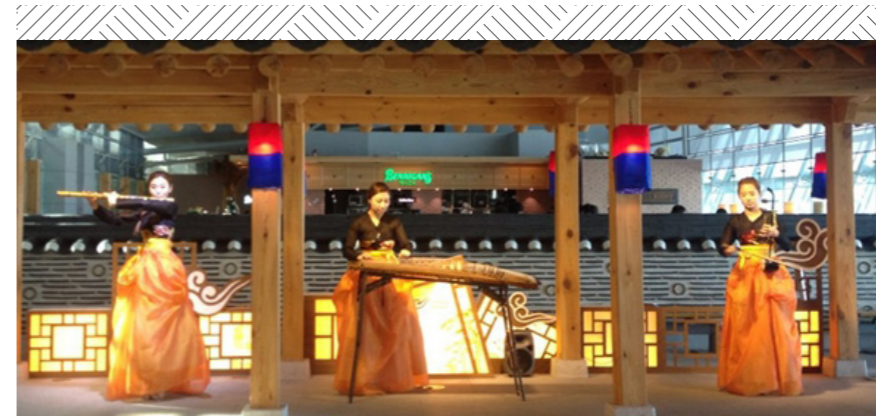
서울시 서초동 국립국악원 내에 위치한 국악박물관은 <원류음악실>에서 고대 출토 유물과 신라 토우 등에 등장한 악기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한편에 가야금 제작 공방이 재현돼 있다. <서민음악실>에는 생활 속의 우리 악기를 전시해놓았다. <세종음악실>을 찾으면 편경 제작 과정이 한눈에 들어온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www.gugak.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현장체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인천국제공항을 찾으면 1년 365일, 국악 연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연과 만난다. 먼저 한국전통문화센터(여객터미널 면세구역 3층 동·서편(2개소) 및 탑승동 3층 중앙서편(1개소)에서 펼쳐지는 국악 공연은 정악과 민속악 중심의 전통 음악으로 채워지며, 한국문화거리(여객터미널 4층 한국문화거리)에서는 주로 창작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세부 일정과 공연 내용은 한국전통문화센터 032) 743-0357, 한국문화거리 032) 741-3423로 문의 가능하다. <http://www.airport.kr>





현장체험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399



기산국악당

산청 출신 국악이론가 기산 박헌봉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하는 곳이다. 복원된 기산 선생의 생가를 둘러볼 수 있으며, 전시된 국악기를 직접 연주해볼 수 있는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기산관, 전시관, 교육관, 옥외공연장을 갖추고 있고, 기산관과 전시관에는 국악기 50여점을 전시, 인근 관광지인 남사예담촌과 연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남사마을에 위치해 있다.





현장체험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147



지영희 국악관

평택이 낳은 근대 국악의 아버지 지영희를 소개하는 전시관으로 국악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이끌었던 그의 업적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52호 시나위 예능보유자였던 지영희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공연도 자주 열리는 종합예술의 장인 이곳에는 지영희 명인에 관한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 문의는 031-683-7303로 가능하다.

<http://ptgugakcenter.modoo.at>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22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일반인을 위한 단기강좌
서울 삼성역 근처에 위치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개최하는 단기 강좌 수강생 모집을 활용하면 악기장에게 직접 악기 제작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전통악기 과목의 경우 15명 내외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해마다 모집 기간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고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www.kous.or.kr 혹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강료와 교육기간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의 집 1층 문화연수팀 02) 3011-1702, 1788 에서 안내하고 있다.





현장체험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521-1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충청북도 영동군에 위치한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에서는 현악기 공방, 타악기 공방, 현 작업실 공간을 활용한 악기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난계국악기제작촌, 난계국악박물관에서도 국악기의 모습과 생생한 제작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nangyekukak.com 이다.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22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전통예술의 보급과 일반인들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일반인 강좌를 개설해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과정에 해당하며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자 과정과 중급단계 돋움과정, 고급단계 맺음과정 및 심화과정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국립국악원 내 국악연수관 안에서 전통악기를 직접 배울 수 있다. 교육 문의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홈페이지 www.ktpaf.org 나 02) 580-3141로 하면 된다.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4-67





국립극장 전통예술아카데미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위치한 국립극장에서는 전통예술에 대한 열정과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전통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악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실력에 따라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매년 프로그램이 달라지므로 국립극장 홈페이지 www.ntok.go.kr 에서 수업기간과 시간, 수강료, 접수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

 국립국악원

해금 명인 김영재 | 양경숙

해금 악기장 조준석

제작 솔루션

글 이건명

사진 아이.엔 스튜디오

영상 올댓콘텐츠